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發 行 人 金 在 淳
編 輯 人 鄭 宗 澤
印 刷 人 金 暎 宰

發 行 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218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5월 1일 【1】

金在淳회장이 최연소 당선자 金民錫동문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15대 총선 당선동문 축하연

관악춘추

제15대 국회에 바란다

4·11 총선 결과 우리 동문이 제15대 국회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매우 자랑스럽고 또한 경축할만 하다. 그러나 15대 국회에 부하된 무거운 과제와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여건을 생각해볼 때 축제기분으로만 들떠있을 수는 결코 없는 노릇이다.

15대 국회는 21세기에 대비한 국정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정치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정치의 올바른 위상을 굳혀야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행정부의 시녀」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식적인 교훈이 되풀이돼야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 있어 15대 국회는 진정한 국정운영의 전당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회는 진정한 국민적 화합의 전당임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국가의 위상은 흐려지기 쉽고 또 지역이기주의로 국민적 통합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럴수록 국민적 화합은 절실하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실력이 큰 변수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의 통합된 역량이다. 이것은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한마음 한 뜻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대사를 가늠하는 경우에 그리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제15대 국회와 특히 우리 동문의원들의 행운을 축원한다.

〈榮〉

만든사람 논설위원:金榮國, 金哲洙, 孫一根, 崔靑林, 朴應七,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李東和, 李炯均, 宋鎭赫, 李年憲, 丘月煥, 洪性萬, 朴紀正,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편집주간:李世震 기자:安興燮, 金志妍, 崔恩熙

서울대인 165명이 금배지 달았다

단기과정 38명 포함…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훨씬 넘어서

金在淳회장이 축사를 통해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운의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5대 총선에 당선된 동문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당선자 80여명을 비롯해 정계, 재계, 관계,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2백여명이 참석했다.

15대 선량으로 당선된 동문수는 AMP(최고경영자과정), AIP(최고산업전략과정), ACAD(국가정책과정) 38명을 포함해 전국구 20명, 지역구 1백45명, 총 1백65명이며 출신대별로는 법대가 60명, 인문대와 사회대를 포함한 문리대 31명 상대 11명, 행정대학원 7명, 사대 5명, 공대 3명, 농대 2명, 치대 2명, 대학원 2명, 사법대학원 2명, 수의대 1명, 약대 1명 순이다 .

당선된 회수로 보면 초선이 67명, 재선이 43명, 3선이 33명, 4선이 12명, 5선이 6명이고 6·7·8·9선이 각각 1명씩이다.

또한 4년제 학부와 대학원 졸업 동문 의원은 13대 총선에서 92명, 14대 총선에서 1백5명, 15대 총선에서 1백27명으로 모교 출신 국회의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날 축하모임에서 金在淳회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조국의 통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더욱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鮮于仲皓총장은 『겨레와 함께 미래로 전진하는 동문 국회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權彝赫전임총장의 축배제의가 있었고 金在淳회장과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동창회장이 당선된 동문들에게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모교 음대 朴忍洙교수의 축가로 막을 내렸다.

〈燮〉

축사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제15대 총선에 당선하신 여러분!

22만 동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당선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본인은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국회의원 당선을 감축합니다.

「민주정치에 관한 학설은 많지만 그것을 알려면 처절하고도 가열된 선거를 실제로 해 보아야 한다. 선거만큼 정치가에게 있어서 최선의 교육은 없다」고 한 윈스톤 처칠의 말을 여러분은 실감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올 것을 머리에 두고 「정치 지도자」는 어떤 것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각자들의 말을 회상하면서 몇마디 옮겨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 낳고 나서 위대해지는 사람, 죽은 다음 위대했다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하는 것은, 어린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바라지만, 어른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가는 승리후의 앞날도 생각한다.

○지도자의 주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새로운 것의 창조와 낡은 것의 守成이다.

○정치지도자에게 있어서 제일가는 덕목은 너그러움이다. 너그러움은 그릇의 크기를 말한다.

○경영은 산문이지만 정치지도는 詩이다. 경영자는 과정을 취급하지만 지도자는 역사의 진로를 취급한다.

○전쟁터에서는 한번 쓰러지면 끝장이지만 정치판에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쓰러진다. 역경은 인생의 위대한 교사이다.

○두려움을 가지고 교섭에 나서지 말라. 그러나 교섭에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공산 독재정치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지도층에 기어오른 자는 위험한 적수가 아니면 보잘 것없는 내시와 같은 존재들이다.

존경하는 동문 당선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가장 총명한 선량들이십니다. 우리나라의 Best and Brightest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머진 책임이 조국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교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은 절실하게 깊이있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 인물이 있는가?」하고 물을 때 두말할 필요없이 그 나라에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지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또 조국의 통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행운의 정치인들이십니다. 4·11 총선거를 치르고 나서 더 한층 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신의 은총과 영광이 있기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합장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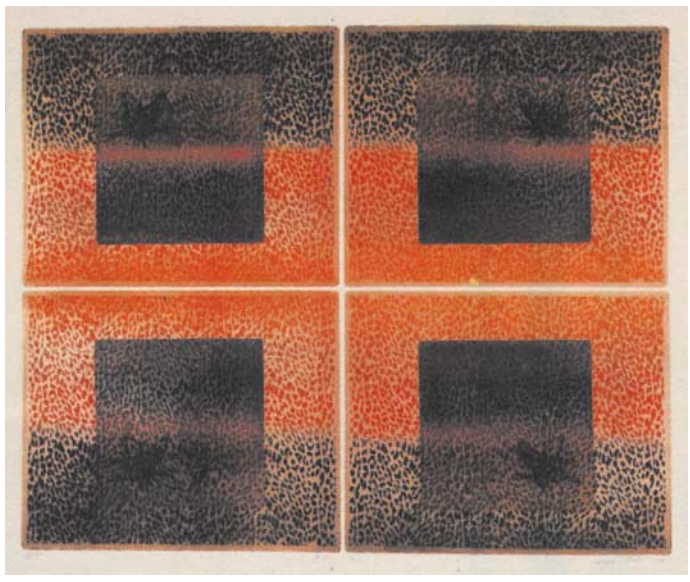
1996年 4月 22日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金 在 淳

미술작품

趙 誠 愛 作



「미로, 9425」 62×50㎝, 에칭, 1994.

〈작가약력〉

△1968년 서울대 미대졸
△美 Art League School 판화 수학
△개인전 9회
△뉴욕 Art Expo 참가
△뉴욕 Art International 참가
△한국현대판화가협회전
△상공부등록 공예디자이너, 한국미술협회 회원, 워싱턴미술가협회 회원, 그룹 「잉킹」회원.

〈작품평〉

주제 「미로」는 글자 그대로 무한한 추상적 공간을 뜻하고, 그 표상을 판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대칭적인 공간의 확산 확대이다. 네모진 공간의 분할은 무한한 기하학적인 유기성을 시사한다.

또 작가의 능동적인 적극성은 작품에 신선감과 진취성을 주고 있다.

작품에 사용된 재료가 토속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소박한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여기에 온화한 색감을 주고 품격있는 분위기를 주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여러 점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지만 이것은 작가의 창의적인 노력의 반영인 것이다. 〈林英芳(前서울대미학과교수)국립현대미술관장〉

서울대총동창회(전화 702—2233)

축 하 합 니 다

총선 당선자 명단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선수
전국구	신 한 국	李會昌	57년 法大卒	1
〃	〃	李洪九	53년 法大入	1
〃	〃	金命潤	46년 法大卒	3
〃	〃	權英子	59년 文理大卒	1
〃	〃	金 悳	58년 法大卒	1
〃	〃	申榮均	55년 齒大卒	1
〃	〃	全錫洪	58년 文理大卒	1
〃	〃	黃秘呂	69년 法大卒	1
〃	〃	金映宣	85년 法大卒	1
〃	〃	康容植	63년 法大卒	3
〃	국민회의	鄭喜卿	55년 師大卒	1
〃	〃	吉昇欽	64년 文理大卒	1
〃	〃	權魯甲	AMP 26	3
〃	〃	千容宅	AMP 31	1
〃	자 민 련	李健介	63년 法大卒	1
〃	〃	金許南	52년 法大卒	1
〃	〃	鄭相千	64년 行大院卒	2
〃	〃	李東馥	57년 文理大入	1
〃	〃	韓灝鮮	74년 行大院卒	1
〃	민 주	李壽仁	63년 商大卒	2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선수
서울용산	신 한 국	徐廷和	55년 法大卒	4
성동을	〃	金學元	70년 法大卒	1
성북을	〃	姜聲才	64년 法大卒	1
강북갑	국민회의	金元吉	68년 商大卒	2
강북을	〃	趙舜衡	64년 法大卒	4
도봉갑	〃	金槿泰	72년 商大卒	1
노원갑	신 한 국	白南治	68년 法大卒	3
은평갑	국민회의	孫世一	71년 文理大卒	3
서대문갑	〃	金相賢	ACAD 27	5
서대문을	〃	張在植	73년 法大卒	2
마포을	신 한 국	朴柱千	65년 工大卒	2
양천갑	〃	朴範珍	64년 文理大卒	2
강서갑	국민회의	辛基南	74년 法大卒	1
강서을	신 한 국	李信範	88년 法大卒	1
구로을	〃	李信行	AMP 25	1
금천	〃	李佑宰	62년 獸醫大卒	1
영등포갑	〃	金明燮	ACAD 31	2
영등포을	국민회의	金民錫	89년 社會大卒	1
동작갑	신 한 국	徐淸源	AMP 26	4
관악갑	〃	李相賢	68년 文理大卒	1
관악을	국민회의	李海瓚	72년 文理大入	3
서초갑	신 한 국	崔秉烈	64년 法大卒	3
서초을	〃	金德龍	61년 文理大入	3
강남을	무 소 속	洪思德	68년 文理大卒	4
강동갑	민 주	李富榮	69년 文理大卒	2
부산영도	신 한 국	金炯旿	71년 文理大卒	2
부산진갑	〃	鄭在文	AMP 5	4
부산진을	〃	金正秀	ACAD 15	5
동래갑	〃	朴寬用	ACAD 18	5
동래을	〃	姜慶植	61년 法大卒	3
남갑	〃	李祥羲	61년 樂大卒	3
북강서갑	〃	鄭亨根	68년 法大卒	1
북강서을	〃	韓利憲	68년 商大卒	1
해운대갑	〃	金沄桓	ACAD 28	3
사하갑	〃	徐錫宰	ACAD 18	5
사하을	〃	朴鍾雄	75년 法大卒	2
금정갑	〃	金鎭載	AMP 16	4
금정을	〃	金道彦	63년 法大卒	1
수영	〃	柳興洙	65년 法大卒	3
대구중	자 민 련	朴浚圭	48년 文理大卒	9
동갑	〃	金復東	AMP 13	2
동을	무 소 속	徐 勳	AMP 38	2
서을	무신한국	姜在涉	74년 法大卒	3
남	자민련	李廷武	64년 法大卒	2
북을	〃	安澤秀	66년 文理大卒	1
수성갑	〃	朴哲彦	65년 法大卒	3
달서갑	〃	朴鍾根	61년 商大卒	1
달서을	무 소 속	李海鳳	67년 法大卒	1
인천중동	신 한 국	徐廷華	ACAD 20	4
남갑	〃	沈晶求	57년 商大卒	4
남을	〃	李康熙	ACAD 30	2
연수	〃	徐한샘	69년 師大卒	1
부평갑	〃	趙鎭衡	ACAD 36	2
부평을	〃	李在明	70년 文理大卒	2
계양을	〃	李敬在	64년 文理大卒	1
광주동	국민회의	辛基夏	70년 司大院卒	4
대전동을	자 민 련	李良熙	66년 法大卒	1
중	〃	姜昌熙	ACAD 22	4
서갑	〃	李元範	ACAD 16	2
유성	〃	趙永載	80년 行大院卒	1
수원권선	신 한 국	金仁泳	ACAD 29	3

선거구	정당	성명	출신대	선수
팔달	신 한 국	南平祐	ACAD 31	2
안양동안갑	국민회의	崔喜準	59년 法大卒	1
동안을	〃	李錫玄	78년 法大卒	2
부천원미갑	〃	安東善	AMP 21	3
원미을	신 한 국	李思哲	81년 法大卒	1
소사	〃	金文洙	76년 商大卒	1
광명을	〃	孫鶴圭	73년 文理大卒	2
평택을	자 민 련	許南薰	62년 法大卒	1
동두천양주	신 한 국	睦堯相	61년 法大卒	3
안산을	국민회의	千正培	76년 法大卒	1
과천의왕	신 한 국	安商守	68년 法大卒	1
시흥	민 주	諸廷垣	80년 社會大卒	2
군포	국민회의	柳宣浩	76년 法大卒	1
여주	민 주	李揆澤	68년 師大卒	2
파주	민 련	李在昌	60년 法大卒	1
연천포천	신 한 국	李漢東	58년 法大卒	5
가평양평	〃	金佶煥	68년 法大卒	1
이천	민 주	黃圭宣	60년 齒大卒	1
안성	신 한 국	李海龜	ACAD 39	3
김포	무 소 속	朴宗雨	62년 法大卒	1
강원춘천갑	신 한 국	韓昇洙	63년 行大院卒	2
원주갑	〃	咸鍾漢	70년 農大卒	3
원주을	〃	金榮珍	62년 法大卒	2
강릉을	민 주	崔旭澈	ACAD 37	2
동해	신 한 국	崔鉛熙	68년 法大卒	1
태백정선	〃	朴佑炳	56년 工大卒	3
홍천횡성	〃	李應善	57년 工大卒	2
영월평창	〃	金基洙	63년 法大卒	2
충북충주	자 민 련	金善吉	53년 文理大入	1
괴산	신 한 국	金宗鎭	59년 法大卒	5
진천음성	자 민 련	鄭宇澤	79년 行大院卒	1
제천단양	무 소 속	金永俊	70년 司大院卒	2
충남천안갑	자 민 련	鄭一永	68년 農大卒	2
천안을	〃	咸錫宰	63년 法大卒	2
공주	〃	鄭石謨	52년 法大卒	6
보령	〃	金龍煥	56년 法大卒	3
아산	〃	李相晩	63년 文理大卒	1
부여	〃	金鍾泌	46년 師大入	8
서천	〃	李肯珪	AIP 9	3
청양홍성	신 한 국	李完九	ACAD 30	1
예산	자 민 련	趙鍾奭	AMP 32	1
전주덕진	국민회의	鄭東泳	79년 人文大卒	1
군산을	신 한 국	姜賢旭	61년 文理大卒	1
익산갑	국민회의	崔在昇	ACAD 38	2
익산을	〃	李 協	71년 法大卒	3
남원	〃	趙贊衡	62년 法大卒	2
김제	〃	張誠源	61년 師大卒	1
임실순창	〃	朴正勳	AMP 29	2
부안	〃	金珍培	ACAD 6	2
전남순천갑	〃	金景梓	64년 文理大卒	1
순천을	〃	趙淳昇	53년 文理大卒	3
나주	〃	鄭鎬宣	75년 大學院卒	1
광양	〃	金明圭	AMP 24	2
곡성구례	〃	梁性喆	64년 文理大卒	1
고흥	〃	朴相千	62년 法大卒	3
목포신안을	〃	韓和甲	63년 文理大卒	2
포항남울릉	신 한 국	李相得	61년 商大卒	3
경주을	무 소 속	林鎭出	AMP 35	1
구미갑	신 한 국	朴世直	60년 文理大卒	2
상주	〃	李相培	62년 法大卒	1
문경예천	〃	黃秉泰	58년 商大卒	2
의성	자 민 련	金和男	70년 行大院卒	1
청송영덕	신 한 국	金燦于	AMP 12	3
군위칠곡	〃	張永喆	ACAD 16	3
영양봉화	〃	金光元	63년 法大卒	1
고령성주	〃	朱鎭旺	74년 文理大卒	1
경남창원갑	〃	金鍾河	64년 文理大卒	4
창원을	〃	黃珞周	65년 商大卒	7
울산중	〃	金泰鎬	61년 法大卒	3
울산남갑	〃	車秀明	63년 法大卒	2
울산남을	민 주	李圭正	ACAD 13	2
울산동	무 소 속	鄭夢準	75년 商大卒	3
울산울주	민 주	權琪述	AMP 9	1
진주갑	무 소 속	金在千	70년 法大卒	1
진주을	신 한 국	河舜鳳	64년 師大卒	3
진해	〃	許大梵	AMP 28	1
사천	무 소 속	黃性均	71년 大學院卒	2
김해	신 한 국	金榮駉	65년 法大卒	2
거제	〃	金洪春	62년 法大卒	1
창녕	〃	盧基太	AMP 21	1
남해하동	〃	朴熽太	61년 法大卒	3
거창합천	〃	李康斗	73년 行大院卒	2
제주	〃	玄敬大	64년 法大卒	4
서귀포	〃	邊精一	64년 法大卒	3

지난 4월 11일 거행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백65명의 동문들이 선량으로 당선돼 모교의 위상을 다시한번 드높였다. 이에 지면을 통해 당선된 동문을 소개함으로써 22만 동문과 함께 축하하고자 한다.

단과대별 당선자현황

	신한국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무소속	계
공대	3					3
농대	1		1			2
인문대		1				1
사회대		1		2		3
문리대	13	7	5	1	1	27
법대	37	10	10		3	60
사대	2	2	1			5
상대	6	2	1	1	1	11
수의대	1					1
약대	1					1
치대	1			1		2
대학원		1			1	2
사대원		1			1	2
행대원	2		5			7
AMP	7	5	2	1	2	17
ACAD	13	3	2	2		20
AIP			1			1
계	87	33	28	8	9	165

이번 제15대 총선에서는 AMP, AIP, ACAD등을 포함해 전국구 30명, 지역구 3백27명, 총 3백57명의 동문이 입후보해 전국구 20명, 지역구 1백45명, 총 1백65명이 당선됐다.

당선 동문중 최고참 선배로는 신한국당 전국구 金命潤(46년 法大卒)동문이며, 자민련(대구·증구) 朴浚圭(48년 文理大卒)前국회의장이 9선으로 최다선을 기록했다. 자민련 전국구 金許南(52년 法大卒)동문은 76세로 최고령, 국민회의(영등포을) 金民錫(89년 社會大卒)동문은 31세의 최연소 당선자로 화제를 모았다.

좌로부터 金映宣, 林鎭出동문, 鄭宗澤상임부회장, 金在淳회장, 鄭喜卿, 權英子동문.

또한 국민회의(전주·덕진) 鄭東泳(79년 人文大卒)동문이 9만7천8백58표로 최다득표를 했다. 한편 여성의원 전국구 7명, 지역구 2명, 총 9명중 신한국당 전국구 權英子(59년 文理大卒), 金映宣(85년 法大卒)동문, 국민회의 전국구 鄭喜卿(55년 師大卒)동문, 지역구(경주을) 林鎭出(AMP 35기) 동문 등 4명이 당선됐다.

한편 법대출신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회의(안양동안갑) 崔喜準(59년 法大卒)동문이 당선돼 이목을 끌었으며 국민회의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전북 군산을) 姜賢旭(61년 文理大卒)동문이 당선돼 지역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燮〉

동창회 임원진 59명으로 증원
제16대 이사 1만6백89명 선임

본회 金在淳회장은 지난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제16대 부회장단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馬景錫(48년 工大卒)한국엔지니어클럽 명예회장을 비롯해 25명이 유임됐으며 趙 淳(49년 商大卒)서울시장을 비롯한 23명이 새로 선임됐다. 그 결과 고문, 명예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을 포함한 동창회 임원진은 59명으로 증원됐다.(명단 7면 참조)

한편 제15대 이사 1만7백42명 중 주소불명, 사망, 해외거주 등으로 1백64명의 결원이 생겼다. 이에 따라 金學俊(65년 文理大卒)단국대 재단이사장을 포함한 1백11명의 동문을 새로 이사에 선임함으로써 제16대 동창회 이사는 총 1만6백89명으로 확정됐다.

아르헨티나지부

한인학교 설립에 1만6천불 출연
동문들의 이민·투자 적극 권장키로

지난 18일 아르헨티나支部同窓會 前총무인 洪賢信(72년 農大卒)동문(사진)이 본회 사무처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회비 5백달러를 전달했다.

현재 사단법인 在아르헨티나 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洪동문은 『아르헨티나에 한국인 학교 설립 모금 운동에 동창회 명의로 1만6천달러를 기증, 교포사회에서 동창회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洪동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공장부지 가격이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해 투자환경이 어느 때보다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이민이나 투자를 원하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연락처: 54-1-473-8091)

文大源 코리아제록스 부회장
본회 사무처에 팩시밀리 기증

코리아 제록스 부회장인 文大源(75년 商大卒)동문(사진)이 지난 26일 동창회 사무처에 팩시밀리(FM 1000)1대를 기증했다.

그동안 기존의 팩시밀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잦고 문서의 팩스 전송량이 증가됨에 따라 동창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文동문이 최신기종의 자사 팩시밀리를 선뜻 기증했다.

「관악홀 의자실명제」에 동참을!

본회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 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출연자 명단(접수순)

◆농생대 농공학과 서둔회(회장 林永穆·간사 李相仁) △李在起 △黃慶九 △柳錫瑩 △池根鎭 △郭英哲 △林炳九 △張吉平 △南光憲 △禹觀熙 △金哲中 △金載佑 △權大旭 △權熙敎 △徐澤東 ◆사범대 명경회(회장 金基玉) △南芳元 △張善岳 △吳明淑 △金順實 △文昌德 △安貞順 ◆李仁涉(안과의원장) ◆辛鍾桂(서울대교수) ◆李相玖(삼성항공정밀기기연구소 선임연구원) ◆李鎔雄(경덕산업대표) ◆張濬皓(변호사) ◆金明姬(한국성악회이사) ◆韓寶均(치과의원장) ◆權鍾七(변호사) ◆姜烘球(변호사) ◆閔元植(이비인후과의원장) ◆崔鍾石(치과의원장) ◆李元哲(변호사)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대학원동창회

金道昶전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權彝赫전임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大學院同窓會(회장 李光魯)는 지난 19일 모교 교수회관 원형홀에서 權彝赫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金完鎭대학원장을 비롯해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임 회장을 역임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金道昶(47년 法大卒·冠岳會理事)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회칙 제3장 제6조 2항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만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학원동창회보 창간호 2천부를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간호대동창회

신입회원에게 졸업 축하메달 전해

楊銀淑회장이 신입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4월 13일 모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錦順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해 치러졌다.

楊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교 50주년을 맞는 이 때에 간호대학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李笑雨학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간호대학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동문 전체의 힘을 모으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同會는 이날 신입회원들에게 졸업메달과 꽃을 전달하고 95년도 회계 및 감사보고를 마친 후, 9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약대동창회

회장단 「藥窓會」총회 참석

뒷줄 좌로부터 세번째 洪文和박사, 네번째 李禮植회장.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 임원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인 동문들로 구성된 「藥窓會」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李회장을 비롯해 洪文和박사, 朴萬基학장, 尹相澈, 李甲烈동문 등 1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藥窓會」 정기총회에 참석해 모교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 논의했다.

〈志〉

제16대 총동창회 임원진

유임부회장 25명
신임부회장 23명
(고딕체는 신임)
〈졸업년도순〉

고 문 閔復基 37년 法大卒 前대법원장	고 문 金俊成 42년 商大卒 이수화학 회장	고 문 金鍾泌 46년 師大入 자유민주연합 총재	고 문 金泳三 51년 文理大卒 대통령	명예회장 崔主鎬 39년 農大卒	
명예회장 鮮于仲皓 63년 工大卒 모교총장	회 장 金在淳 52년 商大卒 샘터사 이사장	상임부회장 鄭宗澤 58년 法大卒 환경부장관	부 회 장 馬景錫 48년 工大卒 호마기술 대표	부 회 장 河永基 48년 文理大卒 제일생명 고문	부 회 장 金相廈 49년 文理大卒 상공회의소 회장
부 회 장 趙 淳 49년 商大卒 서울시장	부 회 장 白樂晥 49년 醫大卒 인제대 총장	부 회 장 具平會 51년 文理大卒 한국무역협회 회장	부 회 장 金許南 52년 法大卒 국회의원 당선자	부 회 장 李聖秀 52년 師大卒 정책평가 연구회장	부 회 장 姜信浩 52년 醫大卒 동아제약 회장
부 회 장 李達雨 53년 工大卒 한국코트렐 회장	부 회 장 裵載湜 53년 法大卒 69년 大學院卒 한일포럼 회장	부 회 장 朴晟容 50년 文理大人 금호그룹 명예회장	부 회 장 鄭元植 54년 師大卒 前국무총리 세종연구소 이사장	부 회 장 宋斗灝 54년 醫大卒 국회의원	부 회 장 金善弘 55년 工大卒 기아그룹 회장
부 회 장 徐廷和 55년 法大卒 국회의원	부 회 장 鄭喜卿 55년 師大卒 국회의원 당선자	부 회 장 申榮均 55년 齒大卒 예총회장	부 회 장 閔丙畯 56년 師大卒 두산개발 부회장	부 회 장 姜晋求 57년 工大卒 삼성전자 회장	부 회 장 李宗勳 57년 工大卒 한국전력 사장
부 회 장 鄭仁奎 57년 法大卒 현대종합금융 회장	부 회 장 趙南煜 57년 法大卒 삼부토건 회장	부 회 장 羅雄培 57년 商大卒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부 회 장 金柱津 54년 法大人 아남그룹 회장	부 회 장 張翼龍 58년 工大卒 (주)서광 회장	부 회 장 李漢雄 58년 商大卒 신협중앙회 회장
부 회 장 李丙俊 59년 商大卒 재미동창회 회장	부 회 장 李金器 59년 藥大卒 일동제약 회장	부 회 장 李埈鎔 60년 商大卒 대림산업 회장	부 회 장 玄昭煥 61년 文理大卒 연합통신 사장	부 회 장 洪斗杓 61년 文理大卒 한국방송공사 사장	부 회 장 李相禹 61년 法大卒 66년 大學院卒 서강대교수
부 회 장 尹世榮 61년 法大卒 서울방송 회장	부 회 장 許鎭奎 63년 工大卒 (주)일진 회장	부 회 장 金鍾振 64년 工大卒 포항제철 사장	부 회 장 崔秉烈 64년 法大卒 前서울시장 국회의원 당선자	부 회 장 卞柱仙 64년 師大卒 걸스카우트 연맹 회장	부 회 장 尹永錫 64년 商大卒 대우그룹 총괄회장
부 회 장 朴容晟 65년 商大卒 두산그룹 부회장	부 회 장 李祥羲 66년 藥大卒 국회의원 당선자	부 회 장 鄭大哲 67년法大卒 69년 大學院卒 국회의원	부 회 장 金基炳 67년 行大院卒 롯데관광 회장	부 회 장 金英大 65년法大卒 70년 經大院卒 (주)대성 대표	부 회 장 玄在賢 71년法大卒 75년 大學院卒 동양그룹 회장
부 회 장 洪錫炫 72년 工大卒 중앙일보사 사장	부 회 장 鄭夢準 75년 商大卒 국회의원	부 회 장 崔元榮 85년 大學院卒 시사저널사 회장	감 사 李基雄 54년 法大卒 딜로이트경영 컨설팅 고문	감 사 方孝宣 55년 文理大卒 세무법인 성광사 회장	사무총장 李世震 73년 法大卒 前국회의장 수석비서관

가정대동창회

「가정학 50년사」 준비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仁子)는 지난달 20일 방배동 소재 「서울탑」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은 「가정학 50년사」 편찬 사업과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 등을 협의했다.

공대동창회

정기이사회 열어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달 24일 모교 호암생활관 2층 「마로니에」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개교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 협의하고 96년도 동창회사업 등을 논의했다.

상대동창회

개교 50주 행사 논의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3월 26일 상의클럽 12층 B룸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96년도 동창회 사업계획과 개교50주년 행사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의대동창회

회관 건립 적극 추진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달 8일 「한남클럽」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동창회관 건립 추진과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치대동창회

정총 준비사항 검토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최근 모교 소회의실에서 상임이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96년도 정기총회 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개교50주년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문리대 15회

97년 모교 방문키로

문리대15동기회는 지난 3월 26일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임원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同會는 10여개의 과별 동창회만큼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입학 40주년이 되는 오는 97년에 전체 동기들이 모여 홈커밍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志〉

금속공학과

유공 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朱承基교수가 모교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張炳洙)는 지난달 19일 논현동 「만리장성」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임 임원진을 구성하고 96년도에 졸업한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로 꾸며진 이날 총회에서는 張炳洙(56년卒·우양상선 회장)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연임을 결정했다.

張회장은 『연로한 회원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별동창회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金康五(모교 대학원 석사과정)동문은 신입회원 답사를 통해 자리를 마련해 준 선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同會는 이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해온 李相龍, 金 澈(석진상호신용금고대표), 金淵植(모교명예교수), 崔楊河((주)한샘대표)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金宗燦(대양실업대표이사)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했다.

참석자들은 금속공학과와 무기재료공학과가 95년도부터 학부를 통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과 관련 재학생들의 차후 소속 동창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동창회 행사시 참가비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과 임원들의 임원회비 납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자원공학과

신임회장에 金運昌동문 추대

5월 5일 열릴 정기총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자원공학과동창회(회장 柳尙熙)는 지난달 17일 역삼동 「석연」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장단과 기별회장단, 자문위원단 등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5월 5일 모교 에너지 자원신기술연구소에서 있을 정기총회와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가질 가족동반 야유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신임 회장에 金運昌(63년卒·(주)한국연수사장)동문을 선출했으며 제15대 총선에서 朴佑炳(56년卒), 朴柱天(65년卒)동문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했다.

행대원 41회

졸업후 첫 동기모임 가져

행정대학원41동기회(회장 崔大鎔)(사진)는 지난달 9일 격월로 이뤄지는 정기모임을 「감자바우」에서 가졌다.

96년도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회원들로 구성된 同會는 졸업후 처음 가진 이날 모임에서 수석부회장에 李鍾溥(대전고검 사무국장)동문을 선임하고, 金春植(비상기획위원회 조사연구실장), 尹甲炳(두산건설전무), 李 埻(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장), 文炳大(삼성전자부사장), 李鍾文(가평치과의원장), 李淳集(한국가스해운대표), 李吉岩(현대필터산업대표), 李鍾植(상원콘크리트대표), 池吉鎬(씨에프랑스대표), 蔡 日(총무처 복무감사실)동문 등 10명을 부회장에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 李在國(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李澤來(한국신용평가전무)동문을 선임하고, 총무에 金光洙(현대산업개발이사)동문을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새로 정비하고 앞으로 알찬 모임으로 꾸려갈 것을 결의했다. 〈熙〉

화학공학과

李富燮회장 선출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金太文)는 지난달 26일 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임기 2년의 신임회장에는 李富燮(동진화성대표)(사진)동문을 선출했으며, 신임 간사장에 崔雄鎭(한화포리마대표)동문, 간사에 鄭寅洙(선경인더스트리 경영개선팀부장), 李炳權(KIST CFC대체기술센터 선임연구원), 李明天(동국대교수), 白承俊(모교 박사과정), 金柏滿(모교 박사과정)동문, 재미간사에는 朴昌源(플로리다대학교수)동문을 선임했다.

국악 9회

봄맞이 모임 개최

국악9동기회(회장 金正秀)는 지난달 24일 서초동 「한국관」에서 봄맞이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同會는 비정기적으로 가족적인 분위기의 모임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창회보에 게재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있거나 신상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편뿐만 아니라 전화·FAX·PC통신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이름, 단과대학 및 졸업년도와 연락처를 정확히 써 주십시오.

(우)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 화〉

직통 (02)702-2233

FAX (02)703-0755

〈PC 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ID: SNUA

느티나무광장

不 撓 子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총선의 희망 징후

선거란 역시 좋은 것이다. 선거를 한 번씩 치를 때마다 이 나라 정치가 조금씩 나아지는 계기가 되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 지가 확인된다. 선거는 또 탁월한 정화기능을 발휘한다. 정치권의 온갖 누추한 요소와 돼먹지 않은 논리들이 선거를 거쳐 정리·청산되고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 잘하는 정치꾼도 항변할 논리가 없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정치에 새 기준, 새 방법, 새 논리가 등장하곤 하는 것이다.

지역주의 탈피 예고편

이번 4·11총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거전에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더 기승하지 않을까, 정국안정세력이 형성되지 않은 채 차기 집권경쟁을 향해 이 나라가 「정치대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가지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4·11총선은 그런 걱정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기도 했지만 걱정을 넘어서는 희망의 징후도 아울러 보여주었다. 지역주의는 예상대로 3金 연고지에서 고착현상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이젠 그것도 한계에 이르러 머지않아 깨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조짐도 읽을 수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신인들의 대거등장과 지역정치의 기득권을 오래 누려온 기성정치인들의 대량탈락이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 3金 연고지에서 역대 선거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난 것도 지역주의 탈피를 예고하는 조심스런 징후다.

지역주의와 표리관계에 있는 3金 구도도 머지않아 해체될 희망을 갖게 되었다. YS는 1년 10개월 뒤면 물러날테고 이번 선거에서 지역당 한계를 못벗은 DJ의 대선 4수가 어려워졌다고 볼 때 3金 구도의 해체는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다.

3金 구도 해체 눈앞에

이제 남은 일은 낡은 기성정치가 퇴장한 후의 이 터전에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다. 정계에 45%가 넘는 신인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계에만 맡겨서는 새 정치가 되기 어렵다. 낡은 정치를 거부한 4·11선거의 희망의 징후를 계속해서 시대의 대세로 만들어 현실정치가 달라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우리 모두의 동참과 발언이 중요하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에고함

IQ와 함께 EQ를!

李軫周(63년 工大卒)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한 나라의 발전에 대한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 동문의 책임이 각별히 크다고 하겠다. 대통령직은 물론 장관직, 국회의원직, 주요 법관직등 삼부요인과 기업체 최고경영층, 언론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주요 간부등의 과반수 이상을 동문들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들의 책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중심국가가 되면 우리의 영예요, 우리나라가 한국병에 침몰하여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참된 성공요소는 감성

우리 동문이 각계 각층에서 이와같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당연히 동문들의 높은 지능(IQ)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감성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다. 「호레이스 월폴」이 『인생은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요, 감성적 느낌만 갖는 사람에게는 비극이다』라고 갈파했듯이 인생의 참다운 성공은 감성적 지능을 나타내는 감성지수(EQ)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IQ가 높은 사람이 본인의 지적 능력으로 이기적 차원의 성공은 쉽게 얻을지 몰라도, 利他的 차원의 참다운 성공은 EQ가 높은 사람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感盲 불감증」없애야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하면서 컴퓨터 맹인이 되는 것은 걱정하지만 감성적 맹인인 感盲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감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생떽쥬베리」가 말했듯이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남을 이해하거나 남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에는 인색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IQ만 높고 EQ가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국가나 조직이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小貪大失의 인간이 되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IQ와 함께 EQ를 갖춘 인격자가 되어, 자신과 이웃과 국가와 인류를 위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세계중심국가가 저절로 될 것이다.

동정

수 상

▲**朴權相**(52년 文理大卒·동아일보고문)=최근 서울언론인클럽 주최 제12회 언론상 특별상을 수상.

▲**徐廷旭**(57년 工大卒·한국이동통신사장·本會理事)=최근 CDMA 관련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李成茂**(60년 文理大卒·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장·本會理事)=지난 4월 10일 출판문화회관에서 月峰저작상 수상.

▲**柳岸津**(65년 師大卒·모교교수)=최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주최 제12회 펜문학상 시상식에서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어라」라는 작품으로 시부문상을 수상.

▲**柳豪玟**(67년 法大卒·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최근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포장 디자인 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成玉姬**(68년 看護大卒·수도여고양호교사·本會理事)=최근 대한간호협회주최 95년도 간호인상 수상.

▲**李赫宰**(70년 工大卒·한국전자통신연구소책임연구원)=최근 CDMA관련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동탑산업훈장 수상.

▲**吳生根**(70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현대문학사가 제정한 제41회 현대문학상 평론부문상을 수상.

▲**閔陽基**(71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서울시의사회와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시상하는 제29회 유한의학저작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

▲**張炳俊**(72년 工大卒·현대전자산업상무)=최근 CDMA관련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범사업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훈장 수상.

▲**崔完喆**(77년 工大卒·숭실대교수)=최근 미국 덴버에서 열린 제2회 콘크리트학회 정기국제학술회에 제출한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에폭시도막 철근의 부착강도 개선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관해」란 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

▲**李煥鍾**(77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제29회 유한의학저작상 장려상을 수상.

▲**曺秀美**(81년 音大入·성악가)=로시니의 오페라 「탄크레디」 앨범(낙소스 레이블)으로 영국의 음반잡지 「클래식 CD」가 주는 96년 베스트셀러 음반상을 수상.

▲**朴贊秀**(85년 經營大卒·외국어대교수)=한국마케팅학회가 95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하는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이동·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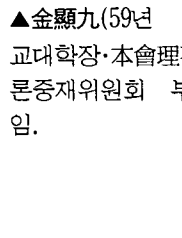
▲**李廷植**(55년 文理大卒·서원대교수·本會理事)=최근 서원대학교 제3대 총장에 취임.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항만협회장·本會理事)=최근 한국항만협회 제20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

▲**朴用楨**(54년 工大入·前창원기능대교수·本會理事)=최근 14년간 근속해온 창원기능대에서 정년퇴임하고 성산산업전기(주)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 경영합리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劉德澤**(58년 法大卒·인천일보전무이사·本會理事)=최근 인천일보 부사장으로 승진.

▲**張永壽**(59년 工大卒·대우건설부문회장)=최근 한국건설업체연합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



▲**金顯九**(59년 農大卒·前청주교대학장·本會理事)=최근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崔大鎔**(59년 法大卒·한국전력공사부사장·本會理事)=최근 세일정보통신 사장에 취임.

▲**金潤熙**(60년 法大卒·동화약품부사장·本會理事)=최근 동화약품 부회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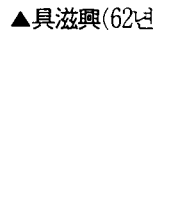
▲**朴嬢實**(60년 醫大卒·박산부인과의원장·醫大同窓會副會長·本會理事)=최근 경기여고 총동창회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제26대 회장에 연임.

▲**奉鍾顯**(61년 法大卒·前장기신용은행장·本會理事)=최근 장은경제연구소 상임고문에 위임.

▲**任貞彬**(61년 師大卒·한양대교수·本會理事)=최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학장에 취임.

▲**申 弘**(62년 法大卒·서울시립대교수·本會理事)=최근 재단법인 한국노사발전연구원 이사장에 선임.

▲**崔曝國**(62년 商大卒·前대신투자자문사장·本會理事)=최근 대신증권사장에 선임.



▲**具滋興**(62년 大學院卒·인하대교수)=최근 인하대학교 중앙도서관장에 취임.

▲**鄭連江**(63년 看護大卒·중앙대교수)=최근 대한 간호학회 회장에 취임.

▲**林昌生**(63년 工大卒·前한국원자력연구소장)=지난달 15일 한국원전연료(주)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차기 사장에 선임.

▲**金久子**(64년 家政大卒·인하대교수)=최근 인하대학교 가정대 학장에 취임.

▲**李 亮**(64년 文理大卒·前제네바대표부참사관)=최근 駐쿠웨이트대사에 임명.

▲**鄭然春**(64년 文理大卒·前교육방송원장·本會理事)=최근 올해 개원한 아주대교육대학원 초대 원장에 취임.

▲**柳得煥**(64년 行大院卒·前섬유산업연합회부회장)=최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돼 한국종합전시장 대표이사 사장도 겸임하게 됐다.

▲**鄭明世**(65년 文理大卒·표준과학연구원장)=최근 충남대덕 연구단지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 및 대학교 대표자 모임인

기관장협의회 총회에서 제5대 회장에 선출.

▲**金商勳**(65년 法大卒·검사1국장)=최근 은행감독원 부원장보에 임명.

▲**金裕采**(67년 工大卒·前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최근 생산기술연구원 고문에 내정.

▲**金聖二**(69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최근 한국청소년학회 제2대 회장에 피선.

▲**白純之**(69년 齒大卒·치과의원장·本會理事)=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피선.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대교수·本報論說委員)=오는 8월 14일부터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릴 「96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기획운영본부장에 선임.

▲**朴壯雨**(70년 法大卒·서울지법부장판사)=최근 변호사 업무를 시작. 주소: 서초구 서초동 1699-16 서초 동현빌딩4층. 전화: 536-5005.

▲**朴三圭**(70년 行大院卒·前공업진흥청장·本會理事)=최근 산업연구원 상임자문위원에 내정.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本會理事)=최근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96년도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

▲**金永國**(73년 師大卒·서원대교수)=최근 서원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

▲**金德重**(75년 文理大卒·세종연구소장)=최근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위촉.

▲**崔元善**(75년 文理大卒·前외무부동북아1과)=최근 외무부 안보차관 주일참사관에 임명.

▲**安炳璨**(75년 新大院卒·前시사저널상임고문·本報論說委員)=지난 3월 1일자로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金福子**(76년 看護大卒·前서울중앙병원 간호차장·本會理事)=최근 서울중앙병원 간호부장으로 승진.

▲**梁承民**(78년 工大卒·숭실대교수)=최근 국회에 새롭게 신설된 정보처리국의 초대 국장에 임명.

▲**金榮錫**(78년 社會大卒·외무부보도분석관·本會理事)=최근 외무부 국회의장 의전 비서관에 임명.

행사·출간

▲**朴善奎**(49년 醫大卒·의학신문회장·本會理事)=지난달 2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의학신문」 25주년과 「日刊保社」 창간 6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개최.

▲**白樂晥**(51년 醫大卒·인제대총장·本會副會長)=최근 중국 북경외국어대학을 방문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김해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평생교육원과 인제대 교육대학원 개원식에 참석.

▲**李榮德**(52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本會理事)=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각계 원로 및 전문가를 초청,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명예회장·本會副會長)=최근 포항가속기연구소에 「방사선 X선 산란시설」을 설치,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운영키로 하고 총투자액의 90%인 9억원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李鍾衍**(56년 商大卒·조흥증권회장·本會理事)=최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산문집 「거꾸로 선 이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金鍾云**(57년 文理大卒·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최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미동양학회 학술회의에 참석.

▲**曺祥鉉**(51년 音大卒·SMC서울뮤직클럽회장·本會理事)=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음악콩쿨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李吉女**(57년 醫大卒·인천길병원 이사장·醫大同窓會長)=최근 백령도의 백령초등학교에 펜티엄 컴퓨터 2대를 기증.

▲**朴成達**(60년 法大卒·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최근 제12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참가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연구 연금증서를 전달.

▲**金泳謨**(61년 文理大卒·중앙대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本會理事)=최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96춘계학술대회를 개최.

▲**崔光哲**(62년 齒大卒·치과이식학회장)=최근 앰배서더호텔에서 대한치과이식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權升淵**(64년 美大卒·화가)=최근 선화랑에서 92년 이후 창작한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

▲**曺英承**(64년 法大卒·한국청소년개발원장)=한국이주축이 돼 추진중인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최근 독일청소년연구원을 방문.

▲**洪義植**(65년 行大院卒·전국투자금융협회장)=최근 전국투자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지체장애 대학생 및 중·고생 5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대표·經大院同窓會長)=카자흐스탄과의 학술문화교류에 힘써온 공로로 최근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文大源**(75년 商大卒·코리아제록스부회장·本會理事)=4월 2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지 제록스를 방문해 디지탈 및 네트워크 기술개발관련 사업추진 등을 논의했다.

▲**鄭夢準**(75년 商大卒·대한축구협회장·本會副會長)=최근 미국에서 열린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출범식에 참석,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2002년 월드컵 유치활동을 폈다.

▲**申璋湜**(82년 美大卒·화가)=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인데코화랑에서 전시회를 개최.

▲**姜賢珠**(88년 美大卒·수묵화가)=최근 환기미술관에서 젊은 세대 수묵화가들을 초청, 개최한 그룹전 「수묵화운동 이후의 수묵화전」에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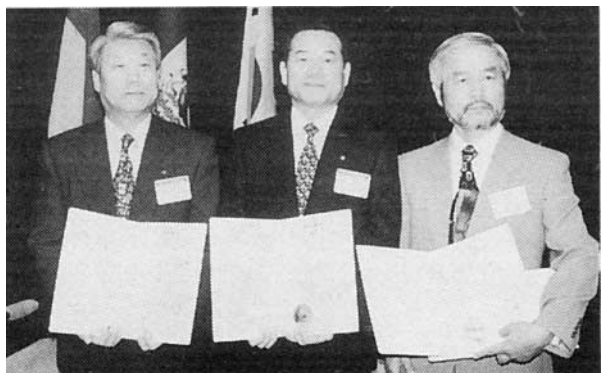
〈정리=崔恩熙기자〉

제29회 「과학기술상」 시상식서
동문 19명 대통령상등 영예 안아

지난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 「과학의 날」 기념식이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제29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대통령상 수상자 4명 중 동문이 3명이나 포함돼 있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과학상의 鄭用昇(62년 文理大卒·한국교원대교수)동문, 기술상의 金鍾振(64년 工大卒·포항종합제철대표)동문, 진흥상의 張永壽(61년 工大卒·경남기업대표)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좌로부터 張永壽, 金鍾振, 鄭用昇동문.

한편, 국민훈장,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중에도 동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모란장: 金鎭福(58년 醫大卒·모교의대교수), 鄭助英(6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동문 ▲국민훈장 동백장: 韓松曄(63년 工大卒·모교공대학장), 朴贊一(69년 醫大卒·모교의대교수), 曺章煥(60년 農大卒·단국대교수)동문 ▲국민훈장 목련장: 金時煥(70년 工大卒·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동문 ▲동탑 산업훈장: 任孝彬(65년 工大卒·고등기술연구원 원장직무대행)동문 ▲철탑 산업훈장: 吳熙錤(68년 文理大卒·쌍용양회공업 중앙연구소장), 李種郁(71년 藥大卒·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동문 ▲석탑 산업훈장: 鄭弘溶(68년 工大卒·동부제강 기계소재사업본부장)동문 ▲산업포장: 洪南杓(73년 大學院卒·한국전력기술원자력사업관리처 상무)동문 ▲대통령표창: 吳海鎭(69년 商大卒·LG-EDS시스템 전무), 鄭鍾河(72년 工大卒·대한광업진흥공사차장)동문 ▲국무총리표창: 尹載虎(73년 農大卒·현대건설 이사대우), 鄭鐘九(72년 工大卒·동부화학 기술연구소장), 李 俊(80년 農大卒·아시아자동차 서울연구소 부장)동문 〈熙〉

동문을 찾아서 1

張水榮 포항공대 총장

英전기전자학회 「기술자 자격증」 받아

"엔지니어를 프로로 인정하는 풍토 조성돼야"

『법률문제를 변호사에게, 건강문제를 의사에게 문의하듯 요즈음 흔히 나오는 전자파공해에 대한 문제를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질의하는 등 엔지니어의 사회적 지위를 프로로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최근 英전기전자학회가 수여하는 기술자 자격증(Chartered Engineer)을 받아 타임지에 소개된 張水榮(61년 工大卒)포항공대 총장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취임이후 2년여동안 총장으로서 주력한 점은.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재단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새로운 연구분야가 개척되고 산업체로부터 위탁과제를 받게됨으로써 실험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한 모금운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LG그룹의 출연을 받아 1백70억을 모금, 5천2백평의 화학·생명과학동을 건립했으며 한달내로 3천평 규모의 전자공학동을 착공할 예정이고 환경분야의 국책대학원으로 선정돼 5년간 2백억을 지원받아 여름에 환경공학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교육부 고등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학 재정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정부의 대학교육 비용은 1조2천억정도이며 대학생수는 1백30만이 넘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천60불정도이며 자비부담을 합쳐도 4천5백불밖에 안됩니다. 스위스 2만2천8백불, 독일 1만7천불, 일본 1만2천불, 미국 7천5백불, 프랑스 6천6백불, 영국 5천8백불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경대 학생수는 서울대보다 적지만 일본정부에서 1조2천억 이상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대에 1천억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거둬 초·중·고 교육에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대학교육만 지원하는 등 기본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학원생을 늘리거나 단과대학을 대학원으로 격상시킨다고 학문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원생은 파트타임학생이 아니라 풀타임학생이 되어야 하고 그 학생들에게는 조교수당을 지급하여 연구실에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와 1대 1로 연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박사가 외국의 박사와 경쟁해서 이겨야 진짜 대학원이 잘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메릴랜드주립대 한국동창회 회장직도 맡고 계시는데.

『1년에 2회 정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릴랜드주립대에서 1891년 농과대학을 졸업한 邊 燧라는 분의 명의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미국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燮〉

명예교수칼럼

뷔페의 어제와 오늘

牟壽美명예교수

원래 뷔페(Buffet)의 사전적 의미는 서랍이 달린 찬장이란 의미였으나 열차내의 간이식당, 손님 각자가 준비된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 먹는 식의 식사 등으로 의미가 확대되었고 서양에서는 이런 뷔페식당을 바이킹(Viking)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뷔페는 국립의료원의 스칸디나비아의료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외국인 전용이었으므로 이들로부터 초대를 받은 한국인이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워커힐이 생기면서 아이젠하워대통령과 같은 국빈을 대접할 때 뷔페가 성행하게 되었다.

귀빈 접대용으로 시작

우리 전통의 상차림인 독상이나 두레상은 모든 음식을 한상에 차려서 내오는 공간전개형 식사법이며 서양이나 중국의 경우는 시간계열형 식사법이다. 그런데 뷔페에 한해 서양에서도 음식을 일시에 상에 차려 놓는 공간형 상차림이므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뷔페는 다양한 식단과 화려한 음식진열, 아름다운 실내장식,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함께 일어났다 앉았다하면서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훼미리레스토랑에 비해 좌석의 효율성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인기가 여전히 높다.

60년대 필자가 농대 재직시절에는 수원에 VIP를 모실만한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새로 도입될 때나 기타 수원에 귀빈이 올 때에는 농가정학과에 뷔페의뢰가 오곤 했다.

그 당시 농대 대강의실을 뷔페장으로 이용해서 농가정학과 학생과 워커힐호텔의 조리사가 합동으로 밤새워 뷔페음식을 준비하면 그 소문이 미리 수원 일대에 퍼져 이를 구경하러온 불청객이 초청받은 귀빈의 두배가 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모처럼 차린 음식을 30분 이내에 모조리 먹어 없애는 바람에 그만 놀라서 울어버린 적이 있다. 이처럼 농촌사람에게 뷔페는 환성을 지를 정도로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과식말고 알맞게 먹자

그러나 오늘의 뷔페는 대중화되어 식사태도도 세련되어졌다. 63분수뷔페와 호텔뷔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번 뷔페식사시 에너지 섭취가 1천kcal에 가깝고 단백질 지방섭취량도 하루의 필요량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맛이 있게, 즐겁게 먹는 동시에 지혜롭고 알맞게 뷔페음식을 먹는 즉 과식하지 않는 식사태도를 가져야겠다. 외국처럼 카운터에서 돈 지불시에 각자 먹은 에너지 수치를 자동적으로 알려 주게 되는 날을 기다리게 된다.

백원건강법

知·德을 體育에 가미한 요가

金東順(44년 齒大卒)영신치과의원장

건강도 연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약 40세까지는 건강의 필요성을 평범하게 생각하고 중년이후 나이가 많을수록 귀중하게 여긴다.

필자의 예를 들면 건강위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재물, 명예, 건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할 사람은 중년이후일 것이다.

예전에는 식사, 운동, 마음가짐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 사람들이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운동,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편안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전 세계의 건강비결은 마음가짐일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사, 운동, 마음가짐을 균형있게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은 마음가짐이 중요

필자가 요가를 시작한 것은 73년 4월 7일이다. 요가를 시작하고 굳었던 몸이 풀리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의 「요가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동안 동호인 10여명과 함께 도장에 모여 수련한다. 필자가 회장겸 사범을 하고 있다.

요가의 특징은 단수, 급수가 없고 시합이 없고 도복도 없고 동작이 전부 느리다는 점이다.

관절운동을 주로 하며 특히 요추운동을 많이 하게 된다.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다. 미국의 쿠프타씨는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척추라고 했다. 척추의 노쇠도가 그 사람의 노쇠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단수, 급수, 시합, 도복없어

필자는 요가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腰嘉」라고 쓰고 싶다. 88년부터는 집사람도 같이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운동이건 좋은 것이지만 필자는 我田引水격으로 표현한다면 요가가 건강에 제일 좋다고 말하고 싶다. 요가는 知育, 德育을 體育에 가미한다.

재물·명예 등 욕심 버려야

명상할 때는 여러가지 호흡을 하며 수양하는 것이다. 사람은 건강하면 대범해지고 긍정적으로 포용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신경질적이 아니다. 처세 혹은 사회생활하는데 원만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자하면 욕심이 적어야 한다. 욕심은 재물, 명예 등에 있을 것이다. 욕심이 적어지면 마음이 편하고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요가의 발상지는 약 5천년전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이라고 한다.

특별기고

역사의 진실 밝혀야

蘇重永(64년 行大院卒)변호사

문민정부 金泳三대통령의 역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우리 국가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과거역사는 군사독재의 큰 오점과 암흑시대가 있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45년의 경력인데, 군사독재시절 남산정보부, 보안사, 청와대특정부를 불행히도 다 가보았고, 고통과 박해도 받았었다.

과거 군사독재가 불법, 부정 축재한 것은 全, 盧씨 사건으로 명백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문민정부도 참다운 법치의주의가 되고 말로 하는 법치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실천되어야 입헌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과거청산이 절실

崔圭夏씨의 「천상의 용」을 비유한 증언거부는 참으로 그가 훌륭한 전직대통령이었다면 그 인격과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후대의 대통령까지 걱정하는 지고지충의 말이 될 것이나 12·12, 5·18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나라 역사의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오각성해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감회가 깊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법률가로서, 우리 정치의 체험선배로서 볼 때 통치자는 법을 통치의 방편으로 악용해서는 아니되며 과거에는 독재자의 권리가 법위에 군림하고 정권과 私利가 우선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은 근본정신이 국민을 사랑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진정한 과거청산과 진정한 개혁이 절실한 것이며, 오직 앞으로도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권도 진정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영재가 나라를 구해

우리 서울대학교는 국가 백년대계의 모체이다.

많고 훌륭한 지성교육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특히 영재(英才)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국가를 구하고 발전에 공헌한 절대적인 선각자, 예지자, 실천자는 몇사람의 영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서울대 동문의 애국, 애족의 실천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동문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서울대가족 음대출신 다섯자매

「가족음악회」 열어 멋진 하모니 자랑

뒷줄 좌로부터 南明和, 가운데 南承希, 앞줄 좌로부터 첫번째 南京和, 두번째 南知倫, 네번째 南知賢동문.

최근 음대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런 동문가족패」를 수상한 가족이 있다. 이 상은 한명의 자녀를 음악인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다섯자매를 건실한 음악인으로 키워낸 南相水(남영나일론회장)·金英順부부의 남다른 열성과 노고에 대한 동문들의 정성이 담긴 뜻깊은 것이었다.

지난 50년대 유학시절 만나 결혼에 이른 南회장 부부는 스물 아홉에 청상이 된 어머니의 뜻과 3대 독자라는 막중한 책임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다른 집은 몇 씩 되는 아들이 점지되기는 커녕 딸만 내리 일곱을 두었으니 南회장 부부의 바늘방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딸들이 훌륭하게 장성해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각자 악기를 들고 가족음악회라도 열면 「이것도 하늘이 주신 또 다른 복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불혹의 나이에 어렵게 둔 장남 碩祐씨가 브라운大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다.

음악을 처음 가르칠 때는 전공시킬 생각보다는 기본 소양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장녀 南明和(82년卒)동문이 예원중학교에 입학해 피아노를 공부하다 예고 2학년때 작곡으로 바꾸면서 동생들까지 차례로 음악을 전공하게 됐다.

셋째 南京和(85년卒)동문은 바이올린을, 넷째 南知倫(86년卒)동문이 피아노를 하다 하프로 전공을 바꿨고 여섯째 南知賢(89년卒)동문은 플룻을, 일곱째 南承希(92년卒)동문이 첼로를 전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음악회라고는 해도 그 규모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음악 외에도 재주가 많아서 차녀 辰和씨는 영어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다섯째 知希씨는 뉴욕 파슨스디자인을 나와 남영나일론에서 수석디자이너로 활약했었다. 게다가 知賢씨는 첼로뿐만 아니라 정구도 잘해 운동을 할까도 생각했었고 경제학을 전공한 장남 碩祐씨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에도 능숙한데 공부를 마치면 일선에서 아버지로부터 호된 경영수업을 받을 계획이다.

일에 있어서 철저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南회장은 자기 자신에게 제일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두루 살피고 장학금이나 교육 기자재 지원 등 명분이 서고 상황에 맞는 출연은 흔쾌히 응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시원시원하고 활달한 성격의 金여사는 남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항상 겸손하라고 가르쳤다는데 그래서인지 여덟남매 모두 어느곳에서든지 가족음악회 만큼이나 멋진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志〉

이런일 합니다

독 도 학 회

민족의 자존을 지켜가는 사람들

愼鏞廈 회장

최근 일본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앞두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 우리들의 심사를 또한번 뒤집었다. 이에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민족의 자존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독도를 연구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월 1일 「독도학회」를 창립했다. 초대회장에 선출된 愼鏞廈(61년 文理大卒·모교교수)회장을 만나보았다.

-창립 배경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일본정부는 올해부터 초중고용 지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 국경선을 표시, 독도를 일본 국토로 명확히 표시하는 자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한국의 독도점령은 불법이므로 경찰 수비대는 철수하고 부착물도 철거하라는 공식성명을 내는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정부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과거처럼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안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절실함 때문에 독도학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은 시작단계입니다. 4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고 앞으로 KBS,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백하게 실증할 수 있는 지도와 문헌자료를 CD롬과 비디오로 제작, 무료배포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제작해서 국내 모든 학교와 관련 단체는 물론 UN을 비롯한 전세계 연구단체, 관련기관에 기증하고 일본정부와 재일동포들에게도 보낼 생각입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합심해 되도록 많은 자료를 모아 「문헌자료집」을 시리즈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회원구성은.

『독도에 대한 「진지하고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90여명이며 高哲煥·權泰檍·朴明圭 모교교수 등을 비롯해 정부기록보존소의 梁泰鎭, 독립운동사연구소의 鄭濟愚회원이 운영위원으로 있고 李種奭 동아일보사고문, 任德淳 충북대교수, 張昌翼 부산수산대교수, 崔相龍 고려대교수 등 35명이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문에게 하시고픈 말씀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끌려가 고유영토를 재판에 맡기는 위험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희망처럼 공동관리 수역으로 선포될 경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를 것이며 더나아가 문화적으로 종속당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 겨레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자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지켜나가는 일에 동문 여러분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성원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전화: 880-6409 〈志〉

모임 探訪

치대九六정우회

각종 조정경기 메달 휩쓸어

술값으로 우승컵 맡긴 막걸리파티

지난 62년 9월 6일 창설되어 그 이름을 「九六회」라고 정한 치대 조정모임이 졸업생들의 모임인 「九六정우회(회장 安聖模·74년 齒大卒·치과의원장)」로 꾸준히 활동해온지 올해로 34년을 맞고 있다.

71년까지 기수마다 8~10명의 회원이 있었고, 현재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九六정우회」에 적을 두고 있다.

조정은 여럿이 함께 힘과 뜻을 합쳐 벌이는 경기이므로 어떤 모임보다 단결심이나 친목의 정도가 강하다. 원래 가정대, 공대, 법대에도 조정모임이 있었으나 현재는 치대안에만 존재하는 것도 같은 학과일수록 더욱 단합이 쉬운 탓이다. 오랜 역사만큼 조정경기에서의 성적도 좋다. 대한체육회 주최 우수단체상을 수상했고, 安회장을 비롯해 지도교수로 있는 韓世鉉(71년 齒大卒)동문 등이 개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비롯 각종 선수권대회에서 40회에 걸쳐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68년에는 멕시코 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에 4명이 참가하고, 70년과 74년에는 대학부 대표로 일본원정을 가기도 했을 만큼 「九六정우회」의 경력은 화려하다.

전국체전 우승컵을 손에 쥐고는 감격에 겨워 막걸리 파티를 하다가 술값대신 우승컵을 맡기고 다음날 지도교수에게는 우승컵대신 외상값 영수증을 받아보게 하기도 했다. 물 위에서 벌이는 경기라 위험한 순간도 많았다. 그때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벌인 생사의 고투는 회원들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했다.

과거에는 무의촌 진료 등 봉사활동도 다른 서클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했다. 그러나 현재는 보건소마다 인력이 있어 87년 성 베드로 학교의 주말 진료활동 이후에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로 진출하여 개원의로, 교육자로 활동하면서도 조정활동에 대한 열의를 잊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자녀들이 치대에 입학할 경우 예외없이 「九六정우회」 가입을 권유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체력과 팀워크를 함께 갖추기에 더없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회원들이 약품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매년 후배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조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면서 후배들이 학업과 조정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하는 「九六정우회」. 95년부터 해군사관학교 조정부와의 「문무전」 경기가 부활됐다. 올 10월의 경기에서도 우승을 다짐하고 있는 회원들은 「九六정우회」가 영원히 빛나는 젊은 모임임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다. 〈熙〉

72년 전국체전 우승 기념사진.

모교소식

인문대학

2개 외국어시험 합격해야 졸업

인문대학(학장 成百仁)은 지난 8일 재학중 2개과목 이상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어 이수규정」을 마련, 95학년도 입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본고사가 폐지되는데다 수학능력시험에도 제2외국어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계속 학습에 필수적인 외국어 학습을 소홀히 할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3학기 등록 이후부터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문 가운데 2개과목 이상 외국어 시험에 응시해 70점 이상을 얻어야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미술대학

97년부터 색맹·색약 입학 허용

미술대학(학장 尹明老)은 국내 대학중 처음으로 97학년도 입시부터 색맹이나 색약 등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던 색각이상자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항목중 색각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색각이상자들의 입학을 막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데다 실기시험만으로도 수학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외국인 자녀 특별전형 자격부여

모교는 지난 7일 모든 재외국민과 외국인 자녀에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97학년도 정원외 학생 모집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모 신분과 직업에 따라 지원자격을 제한한 특별전형을 외국체류자 자녀중 해당지역 학교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모든 학생에게 개방키로 했다.

외국체류자 자녀 모집정원은 인문·사회계 7명, 자연계 11명, 예·체능계 2명이며 외국영주자 자녀 10명 등이다.

또 외국에서 초·중·고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외국인은 대학정원의 2%이내(학과정원의 10%)에서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토록 했다.

석·박사 논문제출 기한 경과자 내년 2학기까지 한시적 구제

개교 50주년을 맞아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수료자들에 대해 논문제출자격을 다시 부여키로 했다.

최근 「학위수여규정 개정안」을 마련,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 사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학원 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의 논문제출기한을 넘겨 학위를 받지 못한 학생에 한해 97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을 제출토록 하여 심사키로 했다.

법과대학

공·사법학과 통합

법과대학(학장 白忠鉉)은 지난 16일 법학교육 개혁 방안의 하나로 오는 97학년도부터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2학년이 되는 96학년도 법대입학생은 과구분없이 법과대학 법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동원그룹 金在哲회장 「동원생활관」건립 기증

동원그룹(회장 金在哲)은 지난 4월 1일 모교에 생활복지시설 「동원생활관」을 건립, 기증키로 했다.

총공사비 30억원이 들어가는 동원생활관은 연건평 7백50여평 지상 3층 규모로 모교 관악캠퍼스내에 건립되며 오는 9월에 완공된다.

경영대 간이식당 자리에 들어서게 될 동원생활관은 학생식당과 교수식당 등 대형식당을 비롯해 패스트푸드 매점이 들어서며 회의실 2개,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도 갖추게 된다.

한국전력 李宗勳사장 연구공원 3백억 지원

한국전력(사장 李宗勳·57년 工大卒)은 지난 18일 모교 연구공원 조성기금으로 3백억원을 출연키로 약정했다.

올해부터 98년까지 모교에 매년 1백억원씩을 출연해 관악캠퍼스 후문 부지에 3천평 규모의 연구동을 건립, 기증하고 20년간 정보통신사업 관련 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암연구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암연구센터(소장 朴在甲)는 지난 12일부터 팩스를 통해 일반인들이 암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무료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팩스(02-766-4477)로 문의할 내용과 주소, 이름,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 보내면 모교 담당교수와 연구원들이 친절히 답변해 주게 된다. 〈燮〉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후보추천

—인격·덕망있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

서울大人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의 후보를 추천 받습니다. 22만 동문중에서 선정되는 서울大人은 우리들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매년 개교 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타계하신 분도 포함)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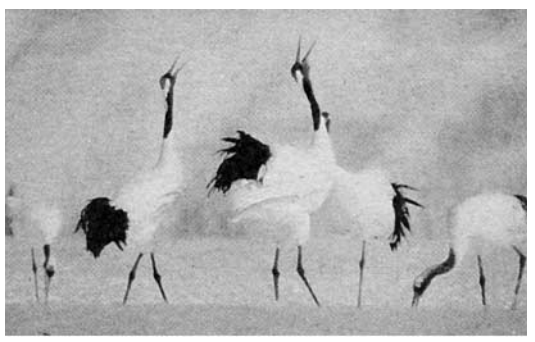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인물을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29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1~7)이나 본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 在 淳
서 울 대 학 교 총장 鮮于仲皓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참 여 •협 력 •영 광



제218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5월 1일 【21】

4월호를 읽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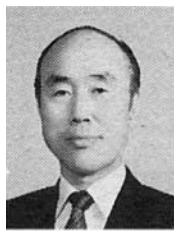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동창회보의 수준향상을 위해 몇마디 의견을 적는다.

타블로이드판형은 보관상 다소 문제가 있다. 그 반의 판형으로 하면 보관하기가 좋을 것 같다. 용지를 미색지로 바꾼 것은 품위향상을 위해 잘 한 것같고 광고효과도 좋아진 것같다.

4월호의 결산공고난에 여백이 많은데 활자를 키우든지 여백을 이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빈 공간이 많아 시각적으로 허전한 느낌이 든다.

문화면 신간에 동창들이 저술한 저서소개와 전시, 연주회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취재를 해서 게재해 주었으면 좋겠고 수상내역, 봉사활동, 국가발전에 공헌한 것 등을 크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金在恩(54년 師大卒)이화여대교수**

주요목차 게재해주길…



동창회보를 받아서 좀 한가할 때는 여유있게 한 장씩 넘기며 여러가지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대개는 매우 바쁠 때가 많다. 따라서 회보의 주요 내용목차를 전면 또는 2페이지에 게재해주었으면 한다.

바쁠 때 동창회보를 받는 경우, 대개는 「나중에 보자」하고 옆에다 놓고는 많은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룰 때가 많다. 이럴 때 앞면이나 둘째면에 주요목차가 있으면 간단히 훑어보고 자기가 필요한 제목의 페이지를 선별하여 읽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즈음 일부 일간지도 예를 들면 「News Focus」, 「주요내용」 등으로 앞면에 목차를 게재하여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閔範植(68년 經大院卒)경기장학관장·前경복고교장**

뜨락

무조건 외국을 선호해서야

李種福(66년 美大卒)포름디자인 대표

간혹 해외 연수나 외국 출장을 가서 자료를 뒤적이다 보면 도시 환경미화에 일찍이 식견을 갖고 노력한 나라일수록 많은 관광객을 불러 들이고 있음을 실감한다. 긴 안목을 갖고 계획을 잡아 일했던 똑똑한 조상의 음덕을 오래도록 누리고 있는 셈이다.

미래 내다보는 정책 필요

요즘 2002년 월드컵 KOREA를 외치고 있는 서울을 생각해보자. 예산 운운하면서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은 계획과 행정으로 1년 안에 부분적인 보수공사에서부터 계획자체를 다시 하는 이중의 예산낭비를 볼 수 있다. 건축내부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다. 수억원씩 돈을 들인 호화빌딩 가운데도 1년안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습관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 낸 먼 장래를 예견하지 못했던 습관때문일까?

요즘은 수백, 수천억짜리 빌딩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멋진 실내 디자인을 한다고 능력이나 인지도의 평가없이 유럽, 미국, 일본등지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에게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칠값, 나무값을 깎는 이들도 외국 디자이너들에게만은 대범하고 식견의 폭이 넓은 발주자로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내 돈과 여건을 내주면서도 가슴 쓰린 줄도 모른다.

정작 돈을 들여야 할 곳에 돈을 아껴 부실공사의 요인을 만든다. 그나마 외국 디자이너라도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다행이다. 아예 외국 사례를 그대로 사진처럼 모방해버리는 경우도 흔하니 문제이다. 어느새 모방의 1인자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우리나라가 비싼 비용을 들여 모셔온 외국인에게서까지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청춘을 저당 잡혀가며 입시지옥을 거쳐 비싼 교육비를 치러가며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우리의 인력들은 얼마의 금전을 위해 후조처럼 떠다니게 된다.

우리 인력 백분 활용하자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들은 모든 것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건물도,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국인에게 후하게 지불하는 지적재산권을 우리의 디자인이나 기술인력에게도 똑같이 지불한다면, 값이 비싸고 싼 물리적 비교가 아닌 그 속에 품어져 있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료의 선택에 따른 비용의 가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뜬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한치 앞이 아니라 먼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똑똑하고 식견이 있는 조상으로, 조상의 음덕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상으로 남을 것이다.

컴퓨터와 벗하는 즐거움

金炳愛(70년 家政大卒)현민컴퓨터 대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때문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금이라도 배워야 하는지 망설여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또 막상 PC앞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컴퓨터를 빨리 익힐 수 있는지 막막하다. 좀 더 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컴퓨터를 일이나 생활의 도구로 삼아 발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초조하다. 우선 남보다 뒤쳐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자. PC앞에 앉아 이 「물건」도 친구 사귀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해보자.

내 아이로 생각하자

컴퓨터는 기껏해야 20세밖에 안된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기억력은 좋지만 약간은 고집스러운 성격이다. PC도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우선 관심있고 당장 필요한 부분에 눈길을 돌리면 된다. 처음부터 컴퓨터 박사는 없다. 배우는데 왕도가 있을 수 없다.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로 컴퓨터와 마주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어느새 컴퓨터앞에 자신있게 앉아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전부 발휘하는 사람이 없듯이 컴퓨터의 기능이 다 활용되는 경우도 없다. 집안에 놓여있는 VCR이나 자동응답 전화기의 기능을 모두 쓰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그래도 다들 편리한 물건들로 쓰고 살지 않는가.

처음에는 게임도 좋다. 타자 연습을 하더라도 PC를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면 된다.

치매예방에 큰 효과

나는 전문가를 자처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되길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내가 겪었던 「컴맹탈출의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가를 궁리할 뿐이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컴맹을 벗어나 컴퓨터를 즐기고 이용하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할 뿐이다.

이제 컴퓨터는 젊은이나 전문가만의 물건이 아니다. 주부에게도 노인에게도 병상의 환자에게도 편리함과 위안을 주는 이기(利器)다. 외부와의 접촉이 뜸해지게 되는 노년에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PC통신을 익히도록 하면 외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와 벗하면 두뇌회전을 도와주니 치매예방의 효과도 클 것이고 무료하지 않아 좋을 것이다.

문화단신

新刊

■관료부패론
-田秀一 著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田秀一(62년 法大卒)동문이 최근 틈틈이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이론체계와 실제를 다룬 「관료부패론」을 펴냈다.〈도서출판 선학사刊·값 9,000원〉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尹永寬 著

모교 외교학과 교수인 尹永寬(75년 文理大卒)동문이 국제정치경제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현재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을 분석, 연구서를 펴냈다. 尹동문은 이 책속에서 한국의 정치경제가 국제적 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탈냉전의 세계사적 대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냉전적 의식, 제도, 관행의 유산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민음사刊·값 13,000원〉

公演

■黃哲益작품발표회
-5월 4일 예술의 전당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黃哲益(57년 音大卒·한국창작음악연구회 대표)동문이 작악회 제17회 작품발표회에서 피아노를 위한 Complication과 Premonition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발표한다.

■서울튜티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5월 5일 예술의 전당

서울튜티앙상블의 제16회 연주회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다. 피아노 李玉姬(70년 音大卒), 바이올린 皮虎英(83년 音大卒), 金貞賢(84년 音大入), 비올라 강창우(83년 音大卒), 첼로 鄭善伊(84년 音大卒), 클라리넷 李昌洙(71년 音大卒)동문이 베토벤, 드보르작, 베버의 작품을 선보인다.

■元永實가야금독주회

-5월 15일 국립국악원

KBS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있는 元永實(92년 音大卒)동문이 가야금 독주회를 갖는다. 元동문은 모교 金靜子, 李在淑교수에게 사사했다.

■郭修銀가야금독주회
-5월 31일 국립국악원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창단 멤버로 활동했던 郭修銀(92년 音大卒)동문이 해금과 장구가 어우러진 20여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展示

■權純亨도예전
-5월 2일 현대아트갤러리

모교 미대 명예교수인 權純亨(55년 美大卒)동문이 그동안 모아온 도자기 작품 60여점으로 10일까지 제16회 도예전을 연다.

■李仁實화훼화전
-5월8~17일 인데코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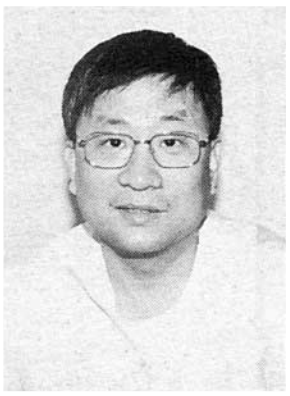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李仁實(65년 美大卒)동문이 야생화같이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한국꽃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정리=安興燮기자〉

외재의 동문

金在燦치과의원장

영화「축제」에 고스톱패로 출연

연극부시절 마당극으로 유명세 치뤄



『노인성 치매로 자식들의 짐이 되어 지내던 노인이 죽자 그 자녀들이 슬퍼하기보다는 큰 짐을 벗은 것처럼 기뻐하는 장례식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축제」입니다. 한 할머니의 장례식을 배경으로 효와 세대간 계승의 의미를 담은 영화에서 상가에 물의를 빚는 고스톱패로 등장하지요』

林權澤감독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연이 되어 교분을 갖고 모교 연극부 시절의 이야기와 연극영화에 대한 안목을 나누다가 영화「축제」에 출연하게 된 金在燦(77년 齒大卒·치과의원장)동문.

『선천성 구순열 환자인 아기들을 생후 2주부터 성장이 멈추는 사춘기까지 거듭 수술을 해 거의 흉터가 남지 않도록 교정하고 있습니다. 모교 의대 성형외과 외래교수로 수요일엔 강의를 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외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치과의사로서 외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아무런 불이익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제 할 일을 다하게 되는 것이구요』

선천성 구순열 환자들이 1회 시술이후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金동문을 안타깝게 한다. 사회적인 냉대 또한 환자들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다.

자신은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어 직업상의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연극영화인들은 그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자신과 같은 이가 폐를 끼쳤다고 강조하는 金동문이지만, 모교 연극부시절 영화「꽃잎」을 감독한 張善宇(본명 張萬喆·85년 社會大卒)동문과 함께 펼친 마당극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극단「연우무대」와「학전소극장」 창단시 동참하면서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는 문화계의 숨은 일꾼이다.

모교 후배들이 인성이 갖추어진 의사가 되어 사회와 환자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는 金동문. 영화「축제」에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熙〉

"동문여러분의 신속한 연회비납부는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理事·一般 : 96년 3월 16일~4월 3일〉

이 사

◇人文大學

▲정세혁㉘제일모직팀장

◇社會科學大學

▲구자명㉖호남정유상무
▲황주철㉗동일건설부사장

◇家政大學

▲박종식㊽前덕성여대교수
▲신화용㉕덕성여대교수

◇看護大學

▲문이숙㊹前이대부속병원
▲유숙자㊸카톨릭의대교수

◇工科大學

▲강기세㊿범건축(주)소장
▲구영창㊷변리사
▲구창남㊹K.H.K.대표
▲권형석㊻두산제관사장
▲김계호㊽유니시스템코리아
▲김덕수㊺장천화학공업사장
▲김도훈㊻연세대교수
▲김락성㊿한전CATV사장
▲김명모㉔서울대교수
▲김성중㊻디.케이.테크대표
▲김영치㊹남성해운사장
▲김용석㊾대한제당연구소장
▲김용재㊶현대알미늄사장
▲김유선㊶강원산업고문
▲김정우㊶우미자원기술사
▲김종근㊽범아건축사장
▲김찬욱㊾이수화학공업사장
▲김창세㊺변리사
▲김창익㊿이레건축사무소장
▲김 철㊻석진상호신용금고
▲김철기㊶삼주건영이사
▲김태희㊾인덕터썸코리아
▲김형룡㊹협성산업사장
▲나종택㊼삼광스틸사장
▲노해규㊼건화ENG회장
▲맹 섭㊺크로바스포츠사장
▲문우택㊶두원정공연구소장
▲문희성㊼한전이사장
▲민경식㊺벽산ENG고문
▲박동정㊹전우개발용역고문
▲박상국㊼(주)삼공사전무
▲박순자㊹서울대교수
▲박승재㊺샘표식품사장
▲박인균㊵범창양행사장
▲박종인㊸동국화공사장
▲박효봉㊹백광산업사장
▲설희순㊻삼성반도체전무
▲성재경㊼남서해운사장
▲손달식㊷부천세종병원감사
▲심옥진㊺현대건설부사장
▲안승일㊼서해도서개발사장
▲안장훈㊸경동인도네시아
▲양수길㊼교통개발연구원장
▲양정웅㊽(주)코아HNC대표
▲양현승㊷우대기술단사장
▲여인희㊸오리엔탈종합전자
▲오계환㊽현대전자부사장
▲오 명㊻前건설교통부장관
▲오성근㊷하나그룹사장
▲오창석㊿대한전기協위원장
▲유간성㊹종합기술개발공사
▲유영주㊷前한국전력처장
▲이광재㊽前원자력연구소
▲이금석㊹우보기술단사장
▲이대락㊻세미크론사장
▲이부섭㊿동진화성공업사장
▲이상룡㊹동원산업이사
▲이상주㊸신공항건설공단
▲이상현㉔우영산업사장
▲이상호㊿서호전기사장
▲이세기㊼포항도금강판사장
▲이수일㊼현대자동차본부장
▲이영재㊾(주)경국대표이사
▲이영호㊻중외제약감사
▲이영희㊶희림종합건축대표
▲이원국㊷(주)대원대표이사
▲이정묵㊻대현기공사장
▲이종근㊾한라중공업고문
▲이종현㊵유진기연사사장
▲이주범㊻쌍용자동차회장
▲인주선㊸호남해운사장
▲장진양㊶대림산업상무
▲전경수㊶서울대교수
▲전긍렬㊽유신설계공단회장
▲전영환㊼오주산업고문
▲전춘생㊹인하대명예교수
▲정경진㊼종로학원원장
▲정명식㊺한국산악회회장
▲정상근㊹상진개발사장
▲정일모㊼국제전자공업사장
▲정조섭㊶중앙대대학원장
▲조병우㊹유풍실업사장
▲조선휘㊻서울대명예교수
▲조양래㊹(주)미광대표이사
▲조창걸㊸한샘(주)사장
▲채방은㊿부산지검차장검사
▲채호석㊸협진정밀회장
▲천주훈㊽천주상사사장
▲최용일㊼LG정보통신상무
▲최재철㊻변리사
▲최정길㊻경인강재사장
▲최정욱㊻오봉인터네셔날
▲최 탄㊻쌍용ENG부사장
▲최홍민㊻세원종합상사
▲추지석㊹효성BASF사장
▲하영무㊸동일상사사장
▲한상겸㊼우림건축사무소
▲함승호㊼조흥화학공업회장
▲홍만기㊽건축사무소장
▲황상일㊹서광건설산업감사

◇農科大學

▲강전유㊶나무종합병원장
▲곽지상㊼수안보온천장호텔
▲김상국㊻세창철강공업사장
▲김영준㊳가락중앙종친회장
▲민관식㊵아세아정책硏원장
▲성우경㊼두산기술원장
▲신문수㊸미성농약사장
▲심완조㊶덕은산업사장
▲안종운㊸농수산부심의관
▲엄기덕㊾보영양행사장
▲오세인㊾아세아종합기계
▲유 황㊿제일모피고문
▲윤희진㊼다비육종사장
▲이규승㊶충남대교수
▲이정영㊻前서한화학부사장
▲이치섭㊷ROSI MEX대표
▲임영목㊸공영토건전무
▲전용화㊵前충남농촌진흥원
▲정구현㊼경기건설진흥공단
▲정창주㊼서울대교수
▲홍범기㊸신성화학사장

◇文理科大學

▲강만식㊺서울대교수
▲고 건㊿명지대총장
▲권왈순㊶광진미래연구소장
▲길현익㊺前서강대교수
▲김두희㊷前숙명여대교수
▲김병익㊶문학과 지성사
▲김상응㊹삼양사부회장
▲김상호㊷형제사대표이사
▲김성열㊽前동아일보고문
▲김성집㊽남정산업사장
▲김순강㊸前(주)서통회장
▲김인규㊸KBS정치부장
▲노재식㊼前과학기술자문
▲박맹호㊼민음사사장
▲서명원㊻前경원대총장
▲신광순㊹前국회의원
▲신우식㊼한국영상자료원
▲신우재㊺청와대공보비서관
▲심계섭㊷서울시교통회관
▲안교덕㊾前청와대비서실
▲유현준㊿대한육상연맹
▲윤 식㊹산업연구원
▲윤재천㊷성보화학사장
▲이남기㊺前수원대강사
▲이동렬㊽前한국코카콜라
▲이두호㊹한림과학원교수
▲이병학㊽삼주전기전무
▲이주천㊸KIST명예교수
▲이한빈㊹KIST이사장
▲임석진㊻명지대교수
▲임의신㊻희성엥겔하드사장

▲장성주㉑삼호특수사장
▲장하구㊻종로서적센터고문
▲정성목㉒의왕고려병원
▲조규광㊽헌법재판소
▲지주선㊽국제문제조사硏
▲최경락㉕외환銀문래동지점
▲한태렬㊷종합유선방송委
▲홍두표㊶한국방송공사사장
▲홍종화㉑홍원제지사장

◇美術大學

▲손희옥㉒단국대강사
▲이시용㊺LSY원색제판硏
▲조수도㉔前대유공전교수

◇法科大學

▲강경식㊶국회의원
▲강홍구㊿변호사
▲강홍주㊷변호사
▲강희철㊾변호사
▲고광우㊽변호사
▲곽정출㊸국회의원
▲권동렬㊸퍼시스대표이사
▲권문구㊻LG전선사장
▲권오윤㊿(주)제양대표이사
▲금병훈㊶변호사
▲김경수㊿대우시멘트사장
▲김경철㊷중앙일보광고본부
▲김기섭㊽변호사
▲김덕영㊹한전종합조정역
▲김덕주㊻변호사
▲김두환㊼숭실대교수
▲김상구㊾한국학술진흥재단
▲김상철㊿변호사
▲김석영㊺태양종합상사사장
▲김석휘㊼변호사
▲김성곤㊷변호사
▲김승진㊷변호사
▲김시영㉕변호사
▲김양배㊸아세아종합금융
▲김영세㊻초원빌딩사장
▲김영수㊹문화체육부장관
▲김영진㉒서울지검북부지청
▲김영호㊼신아유리공업사장
▲김완기㊸변호사
▲김용환㊻국회의원
▲김진만㊹한미銀전무
▲김찬규㊺경희대교수
▲김창근㊺은평구청감사
▲김창엽㊽변호사
▲김현채㊶변호사
▲김홍규㊼연세대교수
▲나석호㊼변호사
▲나채규㉕변호사
▲노승행㊸변호사
▲문정두㊹변호사
▲박만호㊷대법원대법관
▲박유신㊽보윤상사사장
▲박일흠㊼변호사
▲박재경㊶한일銀상무
▲박재철㊺수출입銀부장
▲박정서㊶변호사
▲박제윤㊾국민대교수
▲박종덕㊶대우건설부사장
▲박종흡㊻국회입법차장
▲박찬주㉖변호사
▲박철우㊷변호사
▲방명희㊾대우모터공업사장
▲방 현㉖변호사
▲배경숙㊹인하대명예교수
▲배억만㊽한일흥산사장
▲백충현㊶서울대교수
▲변 욱㊶동양특송사장
▲변재일㊸변호사
▲변학남㊻감우회사무처장
▲서정신㊷변호사
▲서차수㊶변호사
▲손진곤㊹변호사
▲송용식㊺지역정책개발원
▲신창언㊹헌법재판소재판관
▲신호양㊸변호사
▲심훈종㊿변호사
▲안강민㊹대검찰청중수부장
▲안명기㊻변호사
▲안병수㊽변호사
▲안용득㊸대법원대법관
▲안우만㊿법무부장관
▲양승권㊺외환銀인사부
▲염창현㊼대양상호신용금고
▲오세희㊷한국홈쇼핑사장
▲오유방㊸변호사
▲오윤덕㊺변호사
▲우익원㊽경남유통사장
▲유 건㊺교보문고사장
▲유재인㊷제일시티리스전무
▲윤규신㊿제일銀상무
▲윤원석㊸대우중공업회장
▲윤찬렬㉖변호사
▲이경하㊽한국관광공사
▲이규장㉔비지니스서비스
▲이논규㊺법무사
▲이덕모㉕변호사
▲이명재㊺사법연수원부원장
▲이무룡㊺극동도시가스사장
▲이문호㊹LG회장실사장
▲이병석㊽식품개발硏고문
▲이상형㊼대검찰청공안과장
▲이석형㊼변호사
▲이수성㊶국무총리
▲이영범㊸변호사
▲이영준㊶변호사
▲이용우㊺서울고법부장판사
▲이욱재㊼스키장사업협회
▲이 웅㊽변호사
▲이인제㉒경기도지사
▲이재식㉔변호사
▲이종기㉔변호사
▲이지수㊺상업銀이사
▲이찬욱㊽변호사
▲이창구㊸변호사
▲이창원㊿한국단자공업사장
▲이한경㊻국민은행저축부장
▲이환균㊹재정경제원차관
▲이휘영㊼LG화재고문
▲임규오㊾변호사
▲임두빈㊼변호사
▲임봉규㊻동성건설부사장
▲임상순㉓변호사
▲임인택㊸교통개발연구원
▲임채홍㊻변호사
▲장병규㊼두원공전학장
▲전윤철㊺수산청장
▲전충환㊷변호사
▲정구영㊷변호사
▲정명래㊹변호사
▲정우모㊿태영그룹부회장
▲정인규㊼현대종합금융회장
▲정태웅㊷변호사
▲정훈보㊶(주)풍산대표이사
▲정희준㊸前중소기업銀부장
▲조준웅㊼서울지검동부지청
▲조현우㉒변호사
▲조형일㉓HJ무역(주)사장
▲주영훈㊹제일銀남산지점장
▲채재억㊶중소기업진흥공단
▲최규철㊿동명중공업사장
▲최대유㊻코스탈파워사장
▲최두형㊺성원개발회장
▲최상엽㊶변호사
▲최상현㊹동화銀상무
▲최송화㊸서울대부총장
▲최순철㊾성림산업회장
▲최원현㉘변호사
▲최종영㊷법원행정처장
▲최주곤㊿변호사
▲한경구㊺유지상사사장
▲한경국㊶변호사
▲한봉수㊻前상공부장관
▲한영석㊶변호사
▲한진유㊹미도파백화점사장
▲홍돈표㊼한국銀춘천지점장
▲홍이석㉕변호사
▲황명찬㊿건국대부총장
▲황병일㉓변호사
▲황병호㊽산업증권사장
▲황의만㉔변리사
▲황인만㊸변호사
▲황진호㊻변호사
▲황찬홍㊾(주)진진대표이사

◇師範大學

▲김남조㉑前숙명여대교수
▲김상준㊷국정교과서이사장
▲김장화㊽보성고교장
▲김정완㊼심원고교장
▲김찬삼㊿前경희대교수
▲문창완㊻창성기업사사장
▲박승재㊾서울대교수
▲박영석㊹조선기기상사사장
▲박종국㉑경희대교수
▲승만호㊿용산버스터미널
▲신한우㊺경기대교수
▲이규석㉓월곡중학교감
▲이봉현㊿관악고교장
▲이석우㊹한국해양과학기술
▲이익환㊽연세대교수
▲이춘구㊽숙명여대교수
▲이희용㊹진일특수화학공업
▲정만영㊼前홍대부속여중
▲정완호㊸한국교원대교수
▲정종호㊹유진종합개발
▲정주섭㊼은석고교장
▲조 훈㊺전주남중학교장
▲최병주㊿산업과학대교수
▲홍승직㊾아세아사회과학硏

◇商科大學

▲강경만㊽제일물산사장
▲강신종㊻신세계이동통신
▲강신중㊹신한銀전무
▲고광범㊸(주)아상대표이사
▲권보상㊶동양창업투자사장
▲권태웅㊹LG하니웰사장
▲김경덕㊼前한국외환은행
▲김병기㊾세무사
▲김상균㊺한국감정원상무
▲김선태㊻국민銀이사
▲김영환㊾태경산업회장
▲김완기㊿가야문화硏이사장
▲김웅태㊼신영증권이사
▲김윤재㊽한국안전유리사장
▲김정순㊾(주)신영상임고문
▲김제진㊿前신탁銀카드관리
▲김종국㊾보람銀상무
▲김종원㊶진유산업사장
▲김충환㊼한국전자전무
▲김태두㊻조흥증권상임고문
▲김현배㊼한미리스사장
▲노광표㊼한국담배인삼공사
▲맹진성㊾前신보창업투자
▲문언석㊽통일그룹기조실
▲문영도㊾의류쇼핑센타
▲민상기㊿서울대교수
▲민창기㊹장은투자자문사장
▲박노영㊶공인회계사
▲박명규㊿한일증권고문
▲박영복㊸(주)우빈대표이사
▲박중대㊼한국방역산업회장
▲배갑순㊽상도주유소사장
▲배정운㊸철강신문사장
▲배홍규㊼공인회계사
▲서동은㊹현탑인더스트리
▲서청원㊽삼일회계법인상무
▲서태식㊸삼일회계법인회장
▲손수일㊺한국산업銀이사
▲송기태㊻조흥투자자문고문
▲송달호㊿국민銀부행장
▲송용상㊿한국기술금융사장
▲신복영㊾금융결제원장
▲심근섭㊹대우경제硏전무
▲심상은㊹제일銀부장
▲심원택㊸오류농장회장
▲심재석㊽태남석유사장
▲심형섭㊸대한부동산신탁
▲안명수㊹하나銀상무
▲안태호㊸물류관리협의회장
▲양승현㊽(주)경방고문
▲양홍모㊿前성균관대교수
▲어 준㊹서경통상사장
▲우찬목㊾조흥은행장
▲원국희㊼신영증권회장
▲원용훈㊼대림통상사장
▲원우식㊻한보상호신용금고
▲윤세극㊶정일개발사장
▲윤승두㊸前증권거래소
▲윤영석㊹(주)대우총괄회장
▲윤하섭㊾前우행실업감사
▲이동원㊺이화요업사장
▲이병국㊻한길종합금융사장
▲이병규㊼한국은행
▲이상근㊼신용관리기금
▲이성구㊼동방포루마사장
▲이성태㊽한국銀관리부장
▲이영일㊼현대종합금융전무
▲이용우㊺서울증권상무
▲이재진㊼동화은행장
▲이전배㉓전원산업사장
▲이정복㊽정풍상사사장
▲이종덕㊲前조흥은행상무
▲이종연㊻조흥증권회장
▲이태식㊼제일생명사장
▲이한웅㊽신용협동중앙회장
▲이항철㊽前남해화학고문
▲이해욱㊸한국통신이사장
▲임동승㊷삼성증권사장
▲임병태㊼태평양물산사장
▲전재희㊽대우투자자문사장
▲전종혁㊶동아임산부회장
▲정병호㊼인천항만운송협회
▲정진호㊻서울건재판매회장
▲조동일㊹조흥증권상무
▲조병해㊼서울향료사장
▲조 원㊷한국신용평가사장
▲조원기㊵공인회계사
▲조창제㊹외환銀상무
▲조항원㉖교보생명이사
▲지치본㊷충청銀상무
▲진 건㊹진이섬유사장
▲차우상㊶우남기업사장
▲최규익㊽대한컴퓨터부사장
▲최삼길㊺외환銀영업부장
▲최성태㊻제주그랜드호텔
▲최수병㊸서울시부시장
▲최 철㊽효신콘크리트회장
▲표계영㊸한일銀검사부장
▲한근환㊹신한투자금융사장
▲한기철㊻코스모스악기사
▲한상헌㊺삼표산업사장
▲허성용㊽상산소재사장
▲홍영기㊶부국사료사장
▲황창학㊾(주)한진부회장

◇獸醫科大學

▲김배원㊹녹우공업사장
▲김상돈㊼삼양염업회장
▲김오섭㉚아카데미빌딩사장
▲윤지병㊽중앙가축전염병硏
▲윤화중㊽건국대교수
▲이승배㊸수의과병원장
▲장병표㊼삼화동물약품사장
▲전동룡㊻양돈협회장
▲조사선㉒서울대교수

◇藥學大學

▲강재호㊽신신약국
▲강해석㉘함춘약국
▲고대승㊽영일약품전무
▲고형훈㊸고일약국
▲김규호㉒당진약국
▲김영호㊶대림시계사장
▲김장호㊾세심약국
▲김진우㊽신림당약국
▲김태욱㉑현대백화점약국
▲박종길㉕대웅릴리이사
▲신철교㉙아주대약제과장
▲엄태윤㊸한국원자력연구소
▲우동일㊽반도제약사장
▲이동원㉑새한제약회장
▲조남주㊺송전약국
▲조내규㊷제중당약국사장
▲진 강㊿의료보험관리공단
▲최윤환㊿진양제약사장
▲허 백㊼서울약국
▲황의성㊺(주)십자성약사

◇音樂大學

▲김정자㊹서울대교수
▲윤해중㊺前한양대교수

◇醫科大學

▲강세윤㊺강남성모병원
▲고건성㉔고이비인후과원장
▲고계환㊼정형외과의원장
▲고광욱㊶한양대학의료원장
▲김곤식㊾성보의원장
▲김광명㉘서울대교수
▲김근우㊼강남병원장
▲김기영㊾제일병원장
▲김동은㊽정형외과의원장
▲김명주㊷한강정형외과의원
▲김상립㉕정형외과의원장
▲김성심㊸산부인과의원장
▲김성연㉔서울대교수
▲김승욱㊻前서울대교수
▲김연기㊹소아과의원장
▲김인원㉘서울대교수
▲김주현㉑서울대부속병원
▲김중호㊻강남성모병원실장
▲김진복㊽서울대교수
▲김창학㊼산부인과의원장

▲김청수㉔산부인과의원장
▲김형주㊶서울의원장
▲박기복㊾원자력병원
▲박명희㉓서울대부속병원
▲박성구㊻자선산부인과의원
▲박영배㉓서울대교수
▲박인서㊵제일병원고문
▲박재형㉒서울대교수
▲박효일㊹백병원신경외과
▲백상호㊾서울대교수
▲서경필㊼서울대부속병원
▲서재학㊸소아과의원장
▲석동수㊿대동빌딩사장
▲성기호㊻한일병원
▲손광현㊽서울중앙병원
▲송규현㊹동인의원장
▲송영철㊾소아과의원장
▲송원식㉕송외과의원장
▲송희승㊾내과의원장
▲신면우㊿암연구소장
▲신창재㉘서울대교수
▲신현호㉘제일병원내과과장
▲심달섭㊶前대한임상의학硏
▲안문성㉘이비인후과원장
▲양재건㊶양외과의원장
▲위정일㊾한국의학연구소
▲유인상㊸전주안과의원장
▲유태연㊵피부과의원장
▲윤세희㊻인덕의원장
▲윤재일㉒서울대교수
▲윤해근㊻윤중의원장
▲이강훈㉘내과의원장
▲이경지㊸성일산부인과원장
▲이계평㊺이외과의원장
▲이동우㊻외과의원장
▲이명근㉔산부인과의원장
▲이명덕㉓강남성모병원
▲이 영㊸한강성심병원
▲이영철㊻외과의원장
▲이종원㊶외과의원장
▲장돈식㊷서부병원장
▲장선택㊷중대병원검진센타
▲조강희㊺백병원마취과
▲조경환㊽조경환의원장
▲조성래㉓세화정형외과
▲최관흡㊽대성의원장
▲최창식㊵강남성심병원장
▲한기호㊶한외과의원장
▲한두진㊻한국병원장
▲한용철㊻삼성의료원장
▲한원호㊽내과의원장
▲홍영표㊽대한결핵협회원장

◇齒科大學

▲구옥경㊽치과의원장
▲김경원㊻치과의원장
▲김능세㊻치과의원장
▲김문형㊻치과의원장
▲김상숙㊼김치과의원장
▲김성수㉔치과의원장
▲김영언㊶성애치과의원장
▲김인수㊶동산치과의원장
▲김현풍㊻치과의원장
▲김홍석㊶치과의원장
▲남승우㊾남부치과의원장
▲맹형열㊼치과의원장
▲명동성㊼명치과의원장
▲모경집㊻치과의원장
▲민성기㊶민치과의원장
▲박영숙㊺을지병원치과과장
▲백광우㉘치과의원장
▲백동준㊷치과의원장
▲백순지㊾서울치과의사회장
▲변영남㊾성신치과의원장
▲부삼환㊹치과의원장
▲심대섭㊾심치과의원장
▲양 웅㊼웅덴탑클리닉원장
▲양원식㊶서울치대병원장
▲양희일㊵양치과의원장
▲윤한석㊹치과의원장
▲이범모㊵남서울병원치과
▲이윤상㊺치과의원장
▲이정호㊻치과의원장
▲이종철㊾치과의원장
▲임용준㉒치과의원장
▲임철중㊼치과의원장
▲임학순㊷계홍치과의원장
▲장문수㊺신애치과의원장
▲장철성㊻치과의원장
▲전태수㊵전치과의원장
▲정광현㊸중앙치과의원장
▲조 일㊹조일치과의원장
▲최경명㊾치과의원장
▲최성근㊶치과의원장
▲최욱환㊶치과의원장

◇大學院

▲유석진㊾베드로신경과의원

◇經營大學院

▲김윤택㊿대광산업회장
▲김정태㊽신사주유소회장
▲김환종㊿우영산업회장
▲박무익㊿갤럽조사연구소장
▲박정남㉔(주)신한이사
▲장몽인㊼홍우(주)회장
▲최성종㊼화성기업회장

◇保健大學院

▲김초강㉒이화여대교수
▲서성제㉓학교건강관리소장
▲손경애㉖성모의원장
▲신석우㊼국립의료원약국장
▲여현태㊼새강의원장
▲이명화㊷핵전예방의사연맹
▲한홍율㊾서울대교수

◇司法大學院

▲신명균㊾서울고법부장판사
▲안종혁㊸변호사
▲정경식㊺헌법재판소재판관

◇新聞大學院

▲곽찬호㊶평화통일자문회의

◇行政大學院

▲고충삼㊺대한항공부사장
▲김종인㊹동영알루미늄공업
▲김주봉㊼공항공단이사장
▲남상우㉓용산구부구청장
▲박범채㊻고합물산상임감사
▲신기악㊻(주)세풍부사장
▲신순우㉔농수산물검사소장
▲신윤식㊿(주)데이콤고문
▲연기호㊿연흥아세아사장
▲윤일균㊾대한항공협회장
▲전준항㊾변리사
▲정규영㉓신우ENG회장
▲정호택㊶특허법률사무소장
▲조상호㊺신원월드회장
▲조한유㊿조세연구원국장
▲최계순㊺반포산업사장

일 반

◇人文大學

▲김상호㊺ ▲김영훈㊾
▲김태훈㊽ ▲송기국㊿
▲이규철㊻ ▲전인한㊼
▲정병문㊶ ▲조인식㊼
▲최 민㊸ ▲최태영㊿
▲한혜원㊼

◇社會科學大學

▲강정훈㊷ ▲김진기㊻
▲김헌수㊻ ▲김형운㊽
▲남중식㊽ ▲노홍기㊾
▲문영태㊹ ▲방창식㊼
▲손성철㊾ ▲신용호㊾
▲신철식㊼ ▲원종영㊻
▲유천일㊷ ▲이근태㊾
▲이 석㊷ ▲이해수㊿
▲이호진㊺ ▲조숙은㊽
▲최 현㊾ ▲한만엽㊻

◇自然科學大學

▲강승열㊼ ▲김무하㊾
▲김용백㊾ ▲김창환㊾
▲김혁주㊷ ▲배종필㊽
▲신권수㊸ ▲신기순㊾
▲원채희㊽ ▲이동일㊽
▲이승국㊾ ▲장영록㊻
▲전영택㊼ ▲전용호㊾
▲정언택㊻ ▲황찬용㊺

◇家政大學

▲고영숙㉔ ▲배영민㉓
▲송경파㉔ ▲이남희㉓

◇看護大學

▲김기자㊾

◇經營大學

▲고대원㊽ ▲김홍섭㊸
▲박 준㊼ ▲박창수㊼
▲송영출㊿ ▲신동환㊷
▲윤제범㊹ ▲임영식㊷
▲장영철㊿ ▲전제완㊼
▲정수용㊾ ▲정우용㊾
▲조용현㊼ ▲허승호㊸

◇工科大學

▲강무치㊶ ▲강학순㊾
▲고원룡㊽ ▲공성일㊹
▲공일곤㊿ ▲곽신웅㊼
▲권혁선㊻ ▲김경진㊺
▲김관석㊽ ▲김동백㊸
▲김동욱㊽ ▲김 륜㊻
▲김무홍㊾ ▲김병규㊿
▲김성환㊿ ▲김세환㊽
▲김수철㉓ ▲김승교㊶
▲김영택㊷ ▲김우철㊶
▲김원배㉒ ▲김원수㊺
▲김윤환㊹ ▲김의석㊽
▲김인수㊾ ▲김정기㊽
▲김종국㊺ ▲김종채㊶
▲김주연㊽ ▲김준식㊾
▲김평호㊺ ▲김해전㊻
▲김형목㉓ ▲김형중㊾
▲김희범㊺ ▲남군현㊸
▲남기동㊸ ▲남두철㊾
▲남정수㊶ ▲노승규㊻
▲노연상㉔ ▲노정규㊻
▲류시융㊽ ▲문영학㊿
▲문종규㊹ ▲민병찬㊻
▲박광표㊹ ▲박남규㊻
▲박대복㊼ ▲박동원㊻
▲박명준㊼ ▲박상집㊷
▲박선주㊾ ▲박영수㊾
▲박재학㊻ ▲박종옥㊺
▲박진석㊺ ▲박환수㊶
▲배오섭㊿ ▲백사익㊷
▲변은자㊺ ▲서석철㊽
▲서승구㊶ ▲서정선㊸
▲서진구㊼ ▲손혜환㊾
▲송원오㊺ ▲신선호㊻
▲신태형㊺ ▲심용기㊼
▲심재건㊼ ▲안용모㊽
▲안종길㊻ ▲양배덕㊶
▲양윤홍㊿ ▲양재형㊼
▲오성환㊸ ▲오신남㊹
▲오인환㊾ ▲오주석㊸
▲우종범㊾ ▲유영창㊿
▲유완영㊻ ▲유웅석㊷
▲윤극로㊶ ▲윤남진㊼
▲윤병양㊻ ▲윤태식㊹
▲은준표㊾ ▲이경훈㊼
▲이남구㊺ ▲이동선㊶
▲이병길㊺ ▲이병오㊶
▲이복춘㊾ ▲이봉주㊶
▲이선우㊾ ▲이성배㊷
▲이성환㊾ ▲이승무㊺
▲이승복㊺ ▲이승옥㊷
▲이신옥㊻ ▲이영우㊾
▲이완구㊷ ▲이완태㊻
▲이용철㊾ ▲이익효㊺
▲이일신㊷ ▲이재욱㊺
▲이종남㊼ ▲이중근㊼
▲이중원㉔ ▲이창우㊶
▲이태균㊽ ▲이필원㊶
▲이형구㊻ ▲이효일㊾
▲인성남㊼ ▲임성담㊺
▲장병주㊽ ▲장정요㊾
▲전봉수㊽ ▲정구동㊼
▲정산용㊸ ▲정상구㊼
▲정인택㊻ ▲정진성㊽
▲정철수㊺ ▲조용학㊶
▲조재민㊷ ▲조정수㊶
▲조정호㊺ ▲조희연㊶
▲주명로㊼ ▲주현수㊾
▲최갑석㊺ ▲최강호㊿
▲최규영㊺ ▲최동욱㊺
▲최상헌㉔ ▲최성식㊾
▲최영남㊼ ▲최영태㊻
▲최재봉㊷ ▲최홍식㊸
▲최 훈㊼ ▲편윤범㊾
▲하준환㊺ ▲한도성㊷
▲한호동㊻ ▲함동훈㊺
▲허 종㊷ ▲허중오㊸
▲홍성표㊶ ▲홍영하㊼
▲홍찬호㊻ ▲홍충희㊺
▲황덕규㊾ ▲황병구㊽

◇農科大學

▲강경원㊼ ▲강인섭㊼
▲권명구㉒ ▲금방용㊾
▲김갑철㉒ ▲김대경㊺
▲김무렬㊶ ▲김세겸㊸
▲김시홍㉓ ▲김재진㊺
▲김정환㊻ ▲김철기㊽
▲김헌영㊺ ▲노준정㊺
▲민선홍㊸ ▲박관식㊽
▲박승룡㊾ ▲박연성㊿
▲박 호㊸ ▲배기식㊽
▲성삼경㊺ ▲송춘종㊾
▲신광철㊶ ▲신민식㊸
▲신재익㊹ ▲심상우㊶
▲양종성㊶ ▲오길현㊿
▲오익환㊾ ▲유문형㊺
▲유혁근㊾ ▲윤선병㊻
▲윤재인㊸ ▲윤진영㊿
▲이계홍㊷ ▲이군자㊼
▲이긍수㊺ ▲이기영㊻
▲이기조㊼ ▲이병묵㊾
▲이병현㊻ ▲이세웅㊾
▲이영래㊿ ▲이용국㊻
▲이용환㊺ ▲이인형㊶
▲이장희㊾ ▲이창호㊾
▲임광환㊾ ▲임병기㊹
▲정기훈㊶ ▲정돈철㉒
▲정영철㊶ ▲조남길㉒
▲조병찬㉓ ▲조진환㊽
▲채제천㉒ ▲천정하㊽
▲최유풍㊻ ▲한상욱㊶
▲한한수㊶

◇文理科大學

▲강경신㉒ ▲강운태㉒
▲고윤석㊹ ▲구봉회㊻
▲권동숙㊻ ▲권호석㉓
▲김경환㊿ ▲김명수㊽
▲김묘욱㊼ ▲김문수㊹
▲김병택㊻ ▲김봉일㉓
▲김성기㊼ ▲김성무㊿
▲김순길㊺ ▲김순태㊶
▲김 승㊺ ▲김시창㊽
▲김영필㊻ ▲김완규㊽
▲김용필㊺ ▲김운룡㊼
▲김정호㊺ ▲김찬수㊹
▲김창현㉔ ▲김철수㊶
▲김태욱㊹ ▲김태희㊷
▲김혜남㊸ ▲나기웅㊺
▲남형화㉔ ▲도홍길㊺
▲독고찬웅㊾ ▲문영모㊻
▲박경호㊻ ▲박명기㊸
▲박영순㊺ ▲박재우㊽
▲박종철㊹ ▲박태원㊿
▲백승흠㉓ ▲변광수㊺
▲변우현㊾ ▲변창명㊿
▲복진태㉔ ▲서범자㊸
▲서연호㊶ ▲서정태㊶
▲소상영㊽ ▲신동균㊸
▲신정휴㊼ ▲신현영㊿
▲안청길㊹ ▲양규환㊾
▲오원철㊷ ▲유병량㊹
▲유인자㊼ ▲윤건신㊺
▲윤상철㊶ ▲윤종국㊹
▲이 건㊾ ▲이기상㊺
▲이길준㊻ ▲이덕주㊶
▲이덕흥㊿ ▲이돈형㊸
▲이명승㊿ ▲이명해㊸
▲이문규㊼ ▲이상근㊾
▲이상섭㊷ ▲이석희㊽
▲이성화㊷ ▲이 순㊿
▲이영덕㊻ ▲이용숙㊺
▲이정세㊼ ▲이종건㊿
▲이종기㊻ ▲이종명㊽
▲이찬용㊻ ▲이택주㊿
▲이필숙㊿ ▲이해남㊿
▲이혜봉㊻ ▲이혜영㊼
▲인오룡㉔ ▲임승준㊼
▲임정빈㉔ ▲장인협㊶
▲전경수㊶ ▲정연국㊽
▲정용재㊿ ▲정지영㊶
▲정 탄㊿ ▲정한규㊹
▲조성식㊽ ▲조재두㊻
▲조화수㊶ ▲주영돈㊹
▲최남석㉓ ▲최동운㊺
▲최연대㊼ ▲최인규㊻
▲최진영㊾ ▲최 홍㉔
▲최홍룡㊹ ▲추호석㉓
▲한영주㉒ ▲한영희㊺
▲한일상㊽ ▲허두표㊹
▲홍성훈㊶

◇美術大學

▲강남미㉔ ▲강대운㊿
▲강영수㊶ ▲김경숙㊼
▲김 범㊻ ▲김제응㊹
▲김춘강㊽ ▲노부자㊺
▲박상민㊺ ▲서성희㊺
▲손복희㊶ ▲심차순㊶
▲안금희㊾ ▲안명숙㊶
▲오세원㊺ ▲원묘희㊸
▲윤효준㉒ ▲이경희㊶
▲이계안㊹ ▲이길룡㊺
▲이낙훈㊹ ▲정광호㊹
▲홍동식㊶ ▲황인혜㊾

◇法科大學

▲강성구㊼ ▲고방자㊿
▲고원증㊸ ▲공성국㊶
▲공영규㊹ ▲공천오㊾
▲구본성㉖ ▲구연모㊽
▲권영로㊾ ▲권영일㊾
▲김경원㊹ ▲김경한㊻
▲김광인㊶ ▲김광훈㊸
▲김국진㊺ ▲김기엽㊶
▲김기현㊶ ▲김남주㉔
▲김동식㉚ ▲김동화㊶
▲김두영㊹ ▲김상진㊷
▲김성민㊶ ▲김성준㊾
▲김수철㊶ ▲김순평㊺
▲김영균㊴ ▲김용포㊺
▲김우기㊾ ▲김인수㊶
▲김인승㊹ ▲김재률㊴
▲김정현㊿ ▲김정환㊼
▲김지욱㊺ ▲김진표㊶
▲김진홍㊶ ▲김창종㊼
▲김철규㊷ ▲김표진㊹
▲김 현㊿ ▲김형두㊻
▲김홍석㊾ ▲도홍석㊿
▲문성우㊾ ▲민병찬㊶
▲민정기㊼ ▲박동완㊽
▲박동운㊹ ▲박석주㊷
▲박송규㊽ ▲박희건㊸
▲방동춘㊼ ▲방순원㉟
▲서승완㊹ ▲서재현㉚
▲서진석㊾ ▲석동현㊸
▲석성환㊾ ▲설경진㊺
▲성달용㊹ ▲손기호㊸
▲신용한㊶ ▲신인식㉘
▲신현정㊷ ▲신현학㊸
▲신홍기㊻ ▲심상철㊿
▲안덕규㊽ ▲안문태㊹
▲연기호㊺ ▲오지철㉓
▲유영해㊻ ▲유철희㊻
▲유해돈㊶ ▲이경우㊺
▲이광진㊶ ▲이교선㊺
▲이근일㊼ ▲이기섭㊼
▲이덕구㊽ ▲이동식㊷
▲이보형㊲ ▲이세중㊼
▲이수영㉘ ▲이재천㊻
▲이재철㊼ ▲이전오㊶
▲이태창㊺ ▲이현구㊶
▲임승균㊼ ▲임재연㊿
▲임홍근㊷ ▲장 권㊾
▲장태규㊿ ▲전봉원㊻

▲정규승㉕ ▲정규일㊻
▲정동일㊺ ▲정우영㊸
▲정익원㊿ ▲조관기㊶
▲조남현㊶ ▲조석래㊺
▲조주운㊶ ▲주경진㊿
▲최낙규㊾ ▲최선근㊼
▲최우석㊸ ▲최원백㊶
▲최준호㊻ ▲한근우㊾
▲한명관㊷ ▲한정환㊼
▲함정훈㊿ ▲황도연㊻
▲황상구㊷ ▲황성진㊿

◇師範大學

▲강병록㊱ ▲강양아㊾
▲강영자㊺ ▲강헌모㊽
▲고병철㊺ ▲곽묘연㊸
▲구인환㊹ ▲권경종㊸
▲권진숙㊻ ▲권호렬㊿
▲금승호㊹ ▲김경애㊿
▲김광숙㊾ ▲김기우㊽
▲김병국㊸ ▲김병애㊿
▲김봉희㊺ ▲김상수㊿
▲김상훈㊹ ▲김수원㊶
▲김순동㊻ ▲김순매㊿
▲김순실㊶ ▲김영숙㊶
▲김영애㊴ ▲김영예㊴
▲김용신㊷ ▲김원배㊺
▲김월득㉞ ▲김윤애㊽
▲김재영㊽ ▲김죽희㊽
▲김준한㊺ ▲김창호㊸
▲김철진㊺ ▲김태진㊿
▲나병삼㊽ ▲남호법㊾
▲노영식㊾ ▲문정환㊾
▲문창덕㊷ ▲박남기㊶
▲박우선㊹ ▲박제학㊼
▲박종곤㊹ ▲박종대㊻
▲박종서㊶ ▲박찬종㊼
▲박태온㊶ ▲박평우㊿
▲배도식㊶ ▲백성준㊷
▲백운택㊸ ▲백청호㊽
▲봉정모㊻ ▲서윤수㊽
▲서지영㊼ ▲신하영㊸
▲신혜순㊶ ▲심춘섭㊿
▲안광선㊺ ▲안창원㊼
▲연대성㊹ ▲오길임㊹
▲오명숙㊿ ▲오성환㊼
▲왕진형㊻ ▲유근숙㉝
▲유오진㊷ ▲유옥찬㊻
▲유완수㊿ ▲유자효㊺
▲이경선㊶ ▲이기봉㊽
▲이기태㊺ ▲이민호㊼
▲이방렬㊾ ▲이복연㊶
▲이영일㊻ ▲이옥순㊹
▲이인규㊺ ▲이정순㊺
▲이정호㊿ ▲이종록㊹
▲이종신㊺ ▲이종해㊿
▲이춘근㊸ ▲이후영㊽
▲임창순㊷ ▲임혜옥㊴
▲장병환㊻ ▲장일선㊷
▲전영호㊷ ▲전은선㊶
▲전효준㉞ ▲정기숙㊾
▲정두현㊹ ▲정우상㊹
▲정일동㊺ ▲정일환㊿
▲정창오㊺ ▲조명렬㊸
▲조명제㊷ ▲조익선㊿
▲조정희㊺ ▲진덕순㊶
▲차양로㊹ ▲최광일㊾
▲최기남㊻ ▲최인희㊽
▲최종숙㊾ ▲추건이㊸
▲한상덕㊷ ▲한상주㊿
▲허광욱㊶ ▲허 련㊽
▲현순영㊾ ▲홍예숙㊻
▲홍원기㊶ ▲홍인기㊽
▲황혜복㊸

◇商科大學

▲고경식㊼ ▲고병욱㊽
▲곽순동㊺ ▲구영보㊸
▲구태서㊸ ▲권동일㊶
▲권안식㊷ ▲김건수㊿
▲김관채㊻ ▲김광안㊺
▲김기영㊶ ▲김기준㊾
▲김기현㊼ ▲김남완㊺
▲김문수㊽ ▲김보인㊻
▲김상경㊼ ▲김연기㊹
▲김영상㊽ ▲김영휘㊾
▲김정기㊺ ▲김제심㊻
▲김종갑㊻ ▲김태연㊺
▲김학연㊶ ▲김한오㊼
▲김홍기㊾ ▲나제탁㊼
▲류태환㊻ ▲문학모㊹
▲박대룡㊼ ▲박복양㊹
▲박승규㊺ ▲박영일㊺
▲박원준㊼ ▲박일책㊹
▲박창규㊶ ▲박창록㊾
▲박 철㊽ ▲박한수㊼
▲배상천㊸ ▲배영한㊽
▲백낙민㊹ ▲백정환㊺
▲변원옥㊺ ▲서성석㊷
▲서정욱㊺ ▲성유경㊼
▲손광식㊿ ▲손기익㊸
▲송계선㊼ ▲송계충㊸
▲송규현㊺ ▲송병규㊼
▲송인덕㊾ ▲송인제㊿
▲신장환㊷ ▲신종훈㊼
▲신찬수㊶ ▲신평재㊶
▲심문섭㊽ ▲안일성㊹
▲양재국㊽ ▲엄한섭㊻
▲여구연㊻ ▲염 발㊺
▲오세현㊷ ▲오영욱㊽
▲우명환㊼ ▲우상섭㊼
▲유돈규㊺ ▲유만조㊶
▲유병무㊶ ▲유봉단㊼
▲유재한㊼ ▲유창록㊶
▲윤남렬㊽ ▲윤병문㊺
▲이기호㊿ ▲이도근㊺
▲이상규㉚ ▲이상근㊹
▲이상훈㊸ ▲이선남㊶
▲이시하㊿ ▲이영기㊿
▲이영탁㊾ ▲이용우㊸
▲이용원㊹ ▲이웅근㊺
▲이윤달㊾ ▲이창준㊼
▲이한구㊾ ▲이홍일㊹
▲임정일㊻ ▲임지순㊸
▲임진택㊸ ▲장무환㊶
▲장시원㊹ ▲전영기㊾
▲전영덕㊶ ▲전인홍㊽
▲전창모㊷ ▲정광홍㊷
▲정덕화㊷ ▲정문모㊺
▲정재창㊹ ▲조건일㊸
▲조규용㊼ ▲조남직㊸
▲조대형㊿ ▲조명재㊾
▲조영식㊼ ▲조한석㊽
▲조한영㊾ ▲채정렵㊺
▲최진만㊾ ▲하국환㊶
▲하영명㊽ ▲하진수㊴
▲함만준㊻ ▲허 진㊻
▲홍계화㊿ ▲홍성표㊺
▲홍일표㊸ ▲황병준㊷

◇獸醫科大學

▲강석주㊾ ▲김교형㊺
▲김상렬㊸ ▲김창근㊸
▲서정환㊹ ▲송문환㉕
▲안 훈㊼ ▲원문상㊻
▲유승창㊿ ▲이병천㊽
▲이장락㊾ ▲임인선㊽
▲정자영㊽ ▲조광영㊽
▲허정회㊻ ▲홍영선㊸

◇藥學大學

▲강삼식㊾ ▲고인석㊴
▲김성왕㊿ ▲김송덕㊾
▲김양배㊷ ▲김조한㊾
▲노동준㊾ ▲노환성㊶
▲문웅대㊸ ▲배윤상㊽
▲손선일㊹ ▲안현아㊾
▲이갑렬㊼ ▲이경재㊷
▲이대희㊿ ▲이미경㊾
▲이정희㊿ ▲이종지㊼
▲이준행㊾ ▲임용완㊻
▲장정일㊿ ▲전계수㊷
▲정숙기㊽ ▲제금연㊷
▲조동희㊻ ▲조성은㊽
▲차성애㊽ ▲최영자㊾
▲최치선㊺ ▲한연풍㊽
▲한용필㊶ ▲현영우㊶

◇音樂大學

▲강신자㊿ ▲박해정㊼
▲박현선㊿ ▲변미혜㊾
▲사공복수㊿ ▲신경욱㊶
▲오양구㊾ ▲오용록㊷
▲원이경㊶ ▲윤혜원㊿
▲장정자㊹ ▲정혜주㊽
▲조원경㊽ ▲최소희㊿
▲최승준㊷ ▲홍성모㊽
▲홍지영㊼

◇醫科大學

▲강치명㊾ ▲강희륜㊾
▲고학종㊷ ▲국형철㊸
▲김병수㊶ ▲김성근㊶
▲김영진㊷ ▲김용섭㊹
▲김재중㊸ ▲김정용㊻
▲김종정㊷ ▲김태윤㊷
▲김한수㊽ ▲노효근㊻
▲명나혜㊽ ▲박건녕㊾
▲박계순㊼ ▲박동림㊻
▲박문희㊻ ▲박병주㊿
▲박선재㊽ ▲박성희㊾
▲박영석㊻ ▲박옥향㊽
▲박은숙㊾ ▲박이철㊸
▲박정국㊻ ▲서광륜㊻
▲서유헌㊸ ▲서철원㊸
▲성호경㊼ ▲신미자㊺
▲심정연㊾ ▲안종호㊾
▲양희우㊾ ▲오용석㊼
▲오준호㊶ ▲원중희㊺
▲유 권㊷ ▲유영해㊽
▲유재훈㊼ ▲이규동㊾
▲이도훈㊻ ▲이선철㊼
▲이성근㊺ ▲이용일㊿
▲이재순㊾ ▲이창인㊽
▲임공철㊷ ▲임숙빈㊾
▲임채만㊺ ▲임현준㊸
▲장관환㊽ ▲장동을㊶
▲장영길㊹ ▲장학진㊿
▲전상입㊾ ▲정광원㊸
▲정연철㊶ ▲정요한㊼
▲정진우㊾ ▲조성환㊻
▲조수경㊸ ▲조영기㊻
▲지은생㊸ ▲최동섭㊺
▲최득록㊼ ▲최성준㊾
▲최승순㊿ ▲최원로㊽
▲하정훈㊺ ▲한예택㊼
▲한홍모㊶ ▲홍용우㊷
▲홍희정㊻

◇齒科大學

▲강윤모㊻ ▲기창덕㊽
▲김각균㊽ ▲김교식㊽
▲김만석㊿ ▲김명국㊽
▲김병린㊼ ▲김순기㊽
▲김영구㊶ ▲김정자㊺
▲김정호㊻ ▲김종홍㊾
▲김태인㊻ ▲김태일㊶
▲김형수㊹ ▲동방진㊹
▲박기호㊽ ▲박승우㊹
▲박정봉㊻ ▲박희운㊹
▲석창인㊼ ▲신동인㊸
▲우광균㊻ ▲유남순㊹
▲윤명국㊺ ▲윤종구㊽
▲이기수㊿ ▲이명숙㊽
▲이상훈㊶ ▲이선재㊾
▲이정섭㊺ ▲이정식㊺
▲이종도㊽ ▲이주민㊽
▲이진규㊹ ▲장기산㊶
▲정관서㊺ ▲정재영㊹
▲조근태㊶ ▲조창홍㊿
▲천옥경㊶ ▲천옥진㊻
▲최수광㊶ ▲최순철㊾
▲한병소㊾ ▲한보균㊺
▲홍삼표㊽ ▲홍현주㊽
▲황규동㊶

◇大學院

▲김문한㊷ ▲박길수㊶
▲백대균㊷ ▲유붕노㊸
▲이용빈㊷ ▲이정우㊿
▲이정주㊾ ▲전성환㊺
▲조중재㊸ ▲최석문㊺
▲한선화㊹

◇經營大學院

▲김영길㊼ ▲이강부㊸
▲이성권㊽ ▲정홍진㊽

◇敎育大學院

▲이학원㊹

◇保健大學院

▲강탁림㊻ ▲김운서㊹
▲민병찬㊼ ▲백연수㊺
▲이두호㊸ ▲이영근㊺
▲이형진㊼

◇行政大學院

▲김공환㊽ ▲김구현㊻
▲김태중㊺ ▲박재원㊶
▲소중영㊹ ▲여상환㊽
▲유해인㊶ ▲이원우㊷
▲이정호㊸ ▲최재열㊿

◇環境大學院

▲유동주㊻ ▲전상훈㊻
▲정 발㊿ ▲차동원㊸

지 부

◇포항공대

▲장수영 ▲정무영
▲박수용 ▲박인희
▲임경순 ▲이정묵
▲전중환 ▲홍성제
▲김치하 ▲박찬익
▲이근배 ▲이종혁
▲조성준 ▲김대만
▲김범만 ▲김영수
▲원상철 ▲박위상
▲이필중 ▲정 홍
▲김효태 ▲송우진
▲박홍준 ▲남광희
▲김상우 ▲전경훈
▲김오현 ▲이진수
▲권오대 ▲홍기상
▲장영원 ▲장현명
▲이성학 ▲이동녕
▲오세웅 ▲남궁원
▲김승환 ▲강명호
▲이시우 ▲김진곤
▲이정립 ▲김광익
▲구자강 ▲오병하

◇싱가폴

▲남기호 ▲조영선
▲정태웅 ▲이인영
▲이 석 ▲송용민
▲박병구 ▲전홍식
▲송영국 ▲조윤희
▲안재신 ▲김성배
▲박병종 ▲박노진
▲정무현 ▲김남희
▲민성식 ▲임영신
▲윤성근 ▲윤석일
▲나정윤 ▲허정구
▲차상만 ▲백영수
▲임창묵 ▲라팔모
▲서 진 ▲윤병세
▲김진범 ▲정세일
▲손충남 ▲김남택
▲정계조 ▲전정열
▲김기철 ▲민병관
▲조경섭 ▲이수월
▲이재정 ▲김형규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
회원 여러분의 편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 96년 3월 1일~31일

법 인

◇인천중앙길병원 李吉女(57년 醫大卒)= 6좌
◇효천(주) 金成吉(AIP 7)= 1좌
◇울산화학(주) 南敬熙(56년 工大卒)= 1좌
◇태광특수기계(주) 白宗其(68년 工大卒)= 1좌

개 인

◇人文大學
▲박종소㊾ ▲장민한㊽

◇社會科學大學
▲정시영㊼ ▲조동기㊼

◇農科大學
▲박충희㊽ ▲허용갑㊽

◇文理科大學
▲이광수㊷

◇法科大學
▲강홍구㊿ ▲김도창㊼
▲김영선㊾

◇師範大學
▲홍을선㊻

◇商科大學
▲김원복㉕ ▲박항천㊺
▲한찬수㊽

◇藥學大學
▲신정균㊾ ▲장성기㊹

◇音樂大學
▲백승우㊻

◇醫科大學
▲손기섭㊼ ▲이용섭㊽

◇齒科大學
▲문정광㊼

◇大學院
▲이성모㊽

◇保健大學院
▲김대선㊻